

Style

조선일보

JANUARY
2021 vol.215



BALLON BLEU

DE

Cart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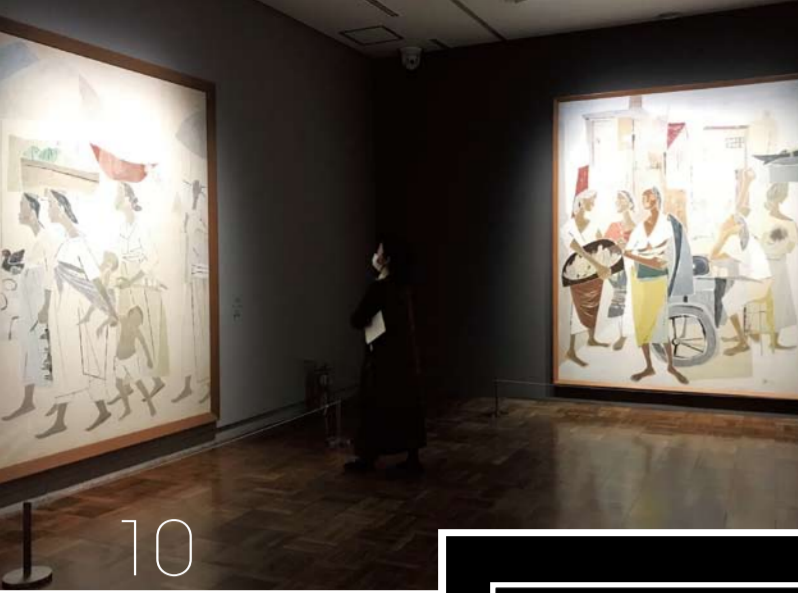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Zip Antique Ludo necklace
transformable into a bracelet,
rubies and diamonds.





06

10

Style **조선일보**
 JANUARY 2021 Vol.215

BALLON BLEU
 Cartier

볼롱블루 강조헤 조약돌을 연상시키는 볼롱블루 드 가브리엘, 볼루 키보스 장식 크라운, 크라운 곡선을 따라 배치한 레일 트랙, 굵은 철길 모양 인덱스와 로마숫자, 검 모양 블루 헌조가 디자인적인 아이덴티티를 드러낸다. 표지 속 모델은 지름 33mm의 스틸 케이스 및 브레이슬릿 버전. 오토 메틱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문의 1566-7277

No More Guerrillas

ART + CULTURE

여성 예술가는 어떻게 (다시) 발굴되는가? 현대 예술에서 여성 작가의 비율은 5% 미만, 미술관에 걸려 있는 누드화 중 85%는 여성 모델이라는 1989년 지적은 30여 년의 세월과 함께 달라진 것일까?

미래의 '드레오'가 될 법한 여성 작가들의 전사를 찾아서 도시 신촌 속에서 우리 시대를 다채롭게 수놓고 있는 여성 작가들과의 만남.

포스트모던 광대 vs 소소한 우주 최근 피너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미국 여류 작가의 개인전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비르다가 사랑한 김자토피아의 세계 포토그래퍼, 영화감독, 시기에 술기로 실렸던 아녜스 비르다(1928~2019)의 삼색 커리어.

HULLO, HULLO 76세에 주목받고, 87세에 글로벌 스타로 활약하는 로즈 와일리(Rose Wylie), 서면 인터뷰로 마녀 그녀를 만났다.

ART JOURNEY 서울숲 갤러리아 포레 지하 2층에는 운영을 시작한 지 10년이 된 데페이즈 갤러리가 자리하고 있다.

알관성도 충성심도 없는, 위대한 그 이름 '리히터' 게르하르트 리히터(Gerhard Richter, 1932~)는 비싼 작가라는 자본주의적 수식어를 다는 것이 송구할 정도로 작품성이 뛰어나고, 현대미술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회복의 시간 나며, 일상 속 조우를 꿈꾸다 자신과 더욱 긴밀해지는 사색의 시간을 제안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STAY WITH LOCAL 가로수길 근처에 문을 연 안테룸 서울, 지금 같은 시기에 이곳을 찾아오는 손님이 끊이지 않는 이유.

차운 디자인의 온기 어린 위로 제주 그리고 서울에서 각각 전사를 펼치고 있는 미디어아트 그룹의 몰입형 콘텐츠를 소개한다.



26

- 10 **박태현, 1백 세 생일을 맞아해 재조명되다** 국립현대미술관(MMCA) 덕수궁관에서 지난 가을 막을 올린 <박태현, 삼중통역사>展.
- 13 **FULL OF JOY** 시간이 지날수록 눈부시게 반짝이는, 기쁨과 행복을 전하는 다이아몬드 폴 파베 워치 & 주얼리.
- 14 **DAZZLING FACE** 손목에 올리는 순간 작품이 된다. 무한한 상상력과 탁월한 기술력으로 특별한 가치를 다한 드라피티 타임피스.
- 15 **HIS ESSENTIALS** 하이 주얼리 매종의 시그니처 브레이슬릿.
- 16 **PORTRAIT OF HER** 배우 김정음이 카메라 앞에 섰다.
- 24 **RELAXING TIME**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면 시간. 소노스존이 숙면과 휴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 26 **THE BEST LIGHT** 완벽하게 빛나는 디자인 오브제, 조명.
- 27 **DINE IN STYLE** 취향과 심미관을 반영한 프리미엄 테이블웨어.
- 28 **BEGIN AGAIN** 혼자서 쉽고 편하게, 효과적으로 보디라인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뷰티 디바이스, 실론 고주파 보디 관리기 실루엣.
- 29 **EDITOR'S PICK** 뉴 이어, 뉴 뷰티 아이템 13.

SPECIAL ART +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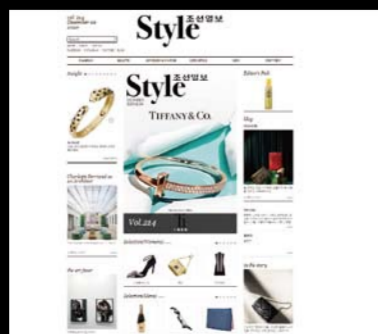
- 32 **여성 예술가는 어떻게 (다시) 발굴되는가?** 현대 예술에서 여성 작가의 비율은 5% 미만, 미술관에 걸려 있는 누드화 중 85%는 여성 모델이라는 1989년 지적은 30여 년의 세월과 함께 달라진 것일까?
- 34 **미래의 '드레오'가 될 법한 여성 작가들의 전사를 찾아서** 도시 신촌 속에서 우리 시대를 다채롭게 수놓고 있는 여성 작가들과의 만남.
- 36 **포스트모던 광대 vs 소소한 우주** 최근 피너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미국 여류 작가의 개인전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 38 **비르다가 사랑한 김자토피아의 세계** 포토그래퍼, 영화감독, 시기에 술기로 실렸던 아녜스 비르다(1928~2019)의 삼색 커리어.
- 40 **HULLO, HULLO** 76세에 주목받고, 87세에 글로벌 스타로 활약하는 로즈 와일리(Rose Wylie), 서면 인터뷰로 마녀 그녀를 만났다.
- 41 **ART JOURNEY** 서울숲 갤러리아 포레 지하 2층에는 운영을 시작한 지 10년이 된 데페이즈 갤러리가 자리하고 있다.
- 42 **알관성도 충성심도 없는, 위대한 그 이름 '리히터'** 게르하르트 리히터(Gerhard Richter, 1932~)는 비싼 작가라는 자본주의적 수식어를 다는 것이 송구할 정도로 작품성이 뛰어나고, 현대미술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44 **회복의 시간 나며, 일상 속 조우를 꿈꾸다** 자신과 더욱 긴밀해지는 사색의 시간을 제안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 45 **STAY WITH LOCAL** 가로수길 근처에 문을 연 안테룸 서울, 지금 같은 시기에 이곳을 찾아오는 손님이 끊이지 않는 이유.
- 46 **차운 디자인의 온기 어린 위로** 제주 그리고 서울에서 각각 전사를 펼치고 있는 미디어아트 그룹의 몰입형 콘텐츠를 소개한다.

Style **조선일보**
 Issue.215 January 2021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장와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이혜미 hmlee0909@chosun.com
 이주이 juyi.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장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정희 ih5567@chosun.com 분해 · 재판 | 라온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나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각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외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동성현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혁신이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하십시오. stylechosun.com

john varvatos

ARTISAN
 the fragrance for men

The past and the future, artfully interwoven



수입판매처: (주)씨아이인터네셔널 | www.ceo.kr | 문의: 080.363.5454



행운의 탄생석

새해를 맞아 타사카에서 행운을 가져오고 소원을 이루주는 탄생석을 결합한 감각적인 디자인의 신제품을 출시했다. 밸런스 클래스 시리즈에서 영감을 얻어 이코아 진주와 12가지 탄생석(가넷, 자수정, 아메타린,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진주, 루비, 페리도트, 사피어, 핑크 투르말린, 시트린, 탄자나이트)을 결합한 '쁘띠 밸런스 클래스' 컬. 별도로 구매하는 체인에 따라 네크리스 또는 브레이슬릿으로 연출 가능하며 자유롭게 레이어드할 수 있어 데일리 아이템으로 제격이다. 가격 미정. 문의 02-3461-5558

ABSOLUTELY WHITE



2021년 새해가 밝았다. 여유와 평화, 신성한 기운을 상징하는 '흰' 소의 해 신축년을 맞이하는 근사한 방법. (우퍼터) 블랙 레커드 메탈 로고와 체인 스트랩을 더해 더욱 감각적인 화이트 그레인드 카프 스킨 소울 플럼 백 가격 미정 **사벨**. 문의 080-200-2700, chanel.com. 1990년대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새롭게 해석한 브리드 카프 레더 프라다 클레오 호보 백 2백44만원 **프라다**. 문의 02-3218-5331. 로고 디테일 블랙 카프 스킨으로 포인트를 준 화이트 카프 스킨 메리제인 슈즈 가격 미정 **사벨**. 문의 080-200-2700, chanel.com. 포토그래퍼 박재용 에디터 이주이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강령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EXCEPTIONAL PIECE

블랑팡 매뉴팩처의 정신과 미학적 코드를 담은 빌레레 컬렉션. 심플한 실루엣과 더블 스텝 케이스로 타인리스한 우아함을 보여주는 이 전통적인 컬렉션에 보다 현대적인 해석을 전폭한 모델이 등장했다. 새롭게 소개하는 빌레레 엑스트라플레이트 부티크 에디션은 선버스트 피니싱 처리한 그린 다이얼과 옐로 골드 케이스의 조화가 한눈에 시선을 끈다. 이 감각적인 외관은 컬렉션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조합이며, 수작업으로 아틀리에 처리한 아워 마커와 전통적인 쿼터 세이징 및 형태의 핸즈 등 완성도 높은 디테일을 더했다. 언뜻 간결한 듯 보이지만 최고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고상능의 자체 제작 칼리버 1151을 장착, 4일간의 파워 리저브를 보장한다. 오직 전세계 블랑팡 부티크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 2천1백만원대. 문의 02-3213-2261



SOFTEST, WARMEST

부드럽고 따뜻한 캐시미어 터틀넥을 입을 때 느껴지는 기분 좋은 포근함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계절. 메이드 인 이탈리아의 최상급 캐시미어 제품을 선보이는 브루넬로 쿠치넬리의 남성용 캐시미어 스웨터를 소개한다. 따뜻한 크림색의 플렉스 스웨터는 슬러브까지 청각적 케미컬 짜임을 더해 여유로운 핏을 갖춘 것이 특징. 캐주얼한 아우터부터 포멀한 코트까지, 어디에나 두루 어울려 겨울 워드러브의 기본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다. 4백83만원. 문의 02-3448-2931

MY NEW BOYFRIEND

남성 복식 요소를 미학적으로 풀어낸 보이프렌드 워치. 어떤 룩이든 우아하게 만드는 정제된 비주얼로 많은 여성에게 사랑받는 이 타임피스가 조금 더 윤리적인 행보에 나섰다. 비윤리적 사육 환경 문제를 비롯해 더 이상 이코즈틱 레더 스트랩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 알짜이 모피 대신 에코 퍼를 사용하며, 지속 가능한 맛을 추구하는 패션계처럼 말이다. 악어 가죽 대신 앨리게이터 모티브를 적용한 가죽 스트랩과 트루트, 메탈 소재와 여러 크기로 다양한 셀렉션을 소개한다. 가격 미정. 문의 080-200-2700, chanel.com



새해, 특별한 선택



2021년 새해가 밝았다. 신년마다 심아 씨산에 해당하는 동물을 모티브로 한정 에디션을 출시하는 몽블랑이 소의 해를 맞아 레전드 오브 조디악 디옥스 에디션 512를 선보인다. 삼패인 골드를 입힌 고급스러운 외관의 1만년필 캠페는 근엄을 상징하는 소와 수확을 의미하는 옥수수를 손으로 새겨 의미를 더하고, 몸통 바깥에는 행운을 상징하는 구름 장식을, 펜 하단 끝에는 탄생석 아메타린을 매치해 신비로운 매력을 배가했다. 평안과 행운을 기원하는 아이템과 함께라면 새해가 더욱 특별할 것. 행운의 숫자 8을 세 번 곱한 5백12점 한정 판매한다. 7백23만원. 문의 1670-4810



가게식 매캐니즘을 향한 우아한 찬사. 여성용 트루비움 워치. (우퍼터) 블랑팡 발라베 투르비움 8 데이즈 쿼터가 없이 절묘한 디자인과 섬세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제품. 깨끗한 다이얼 위 투르비움과 파워 리저브 창, 날짜창으로 컴플리케이션을 채웠다.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핸즈와 블랙 악어 가죽 스트랩으로 우아하게 마무리했다. 1억4천만원대. 문의 02-3213-2261 **바세인 콘스탄틴 트래디셔널 투르비움** 영롱한 자개 다이얼과 로즈 골드 케이스, 은은하게 빛나는 그레이 세틴 스트랩이 아우라진 타임피스. 베젤과 케이스 측면, 리그와 동구, 그리고 플딩 베젤에도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색다른 관능미를 선사한다. 인하우스 칼리버 2160으로 구동하며, 2.5-3의 낮은 진동수에도 회전하는 안정적인 매캐니즘을 감상할 수 있다. 악어 가죽 스트랩을 함께 제공한다. 2억4천만원. 문의 02-3446-0088 포토그래퍼 박재용 에디터 이주이

ESOTERIC LADY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정신을 담다



도자 브랜드 광주요의 반 세기 넘는 역사를 반영하 면서 카페를 결연한 문화 공간이 생겼다. 광주요 이 찬센터점에 57년 역사를 기록한 '광주요 문화관'과 카페 '코유(coyu)'가 지난 늦가을 문을 열었다. 문화 관은 광주요 설립 초기에 만든 1대 제품부터 도자기 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도 구까지 브랜드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다. 도자 개발 과정 에서 다양한 테스트를 거 쳐 선보인 초벌기, 광주요 대표 '묵부옹문'의 디자인 변천 과정, 고려청자의 아름다움 빛깔을 재현한 청자, 현대 아티스트와 협업해 만든 달항아리 등 그동안 광주요 매장에서 볼 수 없었던 콘텐츠가 전시되어 있다. 이찬센터점 내 에 들어선 카페 코유는 디자인 연구소로 사용하던 건물의 외관과 도자를 굽던 가마, 굴뚝을 그대로 살린 인테리어가 인상적인데, 식음료뿐 아니라 다양한 리빙 소품도 접할 수 있다. 문의 02-3442-2054

WINTER FLOWER



봄, 여름, 가을, 겨울. 뚜렷한 사계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큰 행운일 것이다. 반클리프 아펠은 윈터 플라워 컬렉션으로 눈에 띄었던 자연의 아름다움을 기념한다. 이 중 핼레보어 컬렉션은 흑연의 거울에 피어는 크리스마스 로즈에 대한 찬사를 담았다. 하드 스톤의 광채와 다이아몬드의 반짝임으로 생명력 가득한 자연을 생생하게 표현했다. 화이트 머더오브랄, 터퀴아즈, 라피즈 라줄리를 볼륨감 있게 조각해 화이트 골드 위에서 낭만적인 겨울의 색깔을 그린다. 다이아몬드가 꽃잎 중심에서 반짝이며, 영롱하게 빛나는 꽃의 향연을 이루는 핼레보어 네크리스 가격 미정. 문의 1668-1906

HAPPY NEW YEAR!

복된 새해를 위한 4병의 삼패인. (우퍼터 차례로) **엠티 그랑 꼬르동 로제** 신선한 여름 과일 아로마에서 부드러운 바닐라와 달콤한 캐러멜이 아우라진 감미로운 맛. 파노 누이를 60% 이상 블렌딩해 복합적인 구조감을 지니며, 단맛이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된다. 10만원. 문의 02-3466-5700 **페리외 주에 벨 에르크** 진화해 느껴지는 화이트 플라워 향기가 인상적이다. 레몬, 백도, 사탕배 등 신도 높은 과일 베이스에 이온드, 토피, 캐러멜, 꿀로 이어지는 고급스러운 풍미가 일품. 41만원. 문의 02-3466-5700 **벵보 블랑코 로제** 부드러운 버블 속 신랄기와 딸기류. 표현한 생생한 과일 향이 풍부하게 느껴지는 와인. 11만원대. 문의 02-2188-5100 **모엣 & 상동 임페리얼** 1백 가지 와인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최상의 블렌딩을 맛볼 수 있다. 포퓰한 시교와 고급 향에 브리우슈의 견과류의 달콤함이 없게 감도는 맛 8만원대. 문의 02-2188-5100 포토그래퍼 박재용 에디터 이주이



대한민국 침대 과학
스프링의 시즌에서 소노의 시즌으로

「 과학은 바뀐다 」



MEMORY FOAM SYSTEM

TUV LGA

매트리스의 핵심인 안전성과 내구성 모두 글로벌 품질 인증

OEKO-TEX® STANDARD 100

가장 중요한 소재부터 가장 작은 부품까지 유럽 1등급 친환경 인증

Experience Room

숙면을 경험하고 제품을 결정하는 소노호텔&리조트 체험객실

Made in Germany

100% 독일 완제품 기술력을 보장하는 프리미엄 메모리폼 침대

이국적인 패턴으로 장식한 루이비통 트렁크 트레이 가격 미정 다들.

특유의 거트론 데코 기법을 입힌 스토스 드가르디에 벨벳 40인원대 가르디에.

와이츠으로 제작된 포켓워치 핑크스톤 케이스 39000원대 로망티아니.

다들 오블리크 스테인리스 스틸 머그 & 머그홀더 가격 미정 다들 맨.

클래식한 골드 톤 니켈 아세트 테이블 램프 가격 미정 핏프 로렌 홀 컬렉션.

라지 팔라디노, 포일 카바를 함께 구성한 와인 마스터 22.5x13.5인치 빅토리우스.

나폴레옹 황제 양상을 골드 케이스로 새긴 블랙 인베리얼 골드 펜, 28cm, 17만 원 시세, 트루몽.

칼 오브리크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벨루티 베네치아 가죽 파티클로 재해석한 홀 오브제 컬렉션, 4백만 원대 벨루티.

작가 빅토르 위고를 기리는 특별 에디션, 브라운 컬러 몽블랑 병잉크, 50ml, 5만2천원 몽블랑.

타일코피와 브라운 가죽 가죽으로 양장한 칼라카라와 황철 가격 미정 에르메스.

아틀리에 오와 함께 선보이는 오브제 노마드 컬렉션 벨트 체어 가격 미정 루이비통.

최대 240W의 파워풀한 사운드를 360도로 제공하는 포터블 블루투스 스피커 베오레이 20 69만 원 시세, 뽀폴레노스.

스티어링 실버와 아메리칸 왁스, 티파니 블루 에-멜 악센트를 조합한 스티어링 실버 롤러 80만 원 티파니.

스티어링 실버와 아메리칸 왁스, 티파니 블루 에-멜 악센트를 조합한 스티어링 실버 롤러 80만 원 티파니.

다들 · 다들 맨 02-3480-0104 가르디에 1566-7277
로로파이나 02-546-0615 핏프 로렌 홀 컬렉션 02-6004-0220
빅토리 녹스 031-8072-8399 시호 트루몽 02-3449-4523
벨루티 02-547-1895 에르메시도 제나 053-661-6490
에르메스 02-542-6622 몽블랑 1670-4810 티파니 02-6250-8620
루이비통 02-3432-1854 뽀폴레노스 02-518-1380 라몬 1600-1547



The Women Who Inspire Us_12

박래현, 1백 세 생일을 맞이해 재조명되다

사계절을 아우르는 어떤 시기를 택하더라도 덕수궁 산책은 참으로 기분 좋아지는 일이다. 그 안에 낡았지만 남다른 정취가 어려 있는 미술관이 자리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대개 흐릿하거나, 경이로운 발견을 하게 되어서 늘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품게 되고 말이다. 국립현대미술관(MMCA) 덕수궁관에서 지난 가을 막을 올린 <박래현, 삼중통역자>展은 공부를 거닐면서 커피 한잔하는 작은 여유도 있고 그림에 집중할 만큼, 그리고 며칠 새 또다시 찾아갈 수밖에 없을 만큼 좋은 전시였다. 탄생 1백 주년을 맞이해 걸출한 예술가이자 20세기 슈퍼 우먼이었던 박래현을 진실되게 재조명하려 애쓴 이 영감 넘치는 전시를 혹여나 놓쳤다면 해도 애석해할 필요는 없다. MMCA 청주관으로 무대를 옮겨 가니까(1월 26일부터 5월 9일까지).

“가정생활에서 나 자신의 생활을 얻는다는 것은 말하기 쉽고, 실천하기는 어려운 큰 투쟁일 것이다. 가정과 예술의 완전한 양립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1세기 전 태어난 박래현(1920~1976)은 문명과 기술의 발달로 가사가 많이 편해진 요즘도 힘들다는 ‘일과 삶의 균형’이 쉽지 않음을 토로하는 글을 여러 차례 남겼다. 그렇지만 그녀의 인생 여정을 대략 훑어보면, 사실 ‘슈퍼 우먼’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아낸 것 같다. 유학을 다녀온 신여성으로 가정일을 꾸리면서 4명의 자녀를 아무지게 키워냈고, 20세기 한국 화단에 선구적 자취를 남길 정도의 커리어를 쌓았으니 말이다. 더구나 남편 운보 김기창(1913~2001)은 유명하고 재능 있는 화가이기도 했지만 청각 장애를 지녔기에 가정에서 사회 활동이든 그녀가 짊어져야 하는 역할은 비중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 이번 전시명에 쓰인 ‘삼중통역자’라는 수식어도 부부 화가로서 많은 활동을 함께 한 남편을 위해 영어, 한국어, 구화(구어)를 넘나드는 언어 통역을 맡은 박래현의 ‘사명’을 뜻하는, 그녀 자신의 표현이다(물론 전시에서

는 회화, 태피스트리, 판화라는 세 가지 매체를 넘나들며 연결 지었던 그녀의 예술 세계를 의미하는 중의적 표현이기도 하다). 그래서 누군가는 뼈 있는 우스갯소리를 했다. 제발 박래현 같은 능력자가 자주 나오면 안 된다고, 원더우먼처럼 뒤편 칩척 해내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릇된’ 고정관념을 세상에 심어주게 되지 않느냐고 말이다. 그녀의 세세한 삶이 궁금해졌다.

유학파 신여성, ‘현대 한국화’에 대한 깨달음을 얻다
 확실히 박래현은 언뜻 보기에 당시 한국 여성으로서는 꽤 ‘럭셔리한’ 삶을 살았다. 대지주의 딸로 태어나 여성을 둘러싼 사회적 제약이 많은 시절에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일찍잡지 ‘바깥세상’을 만나고 배웠으니 일제강점기를 거치긴 했어도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녀는 탁월한 미적 감각뿐 아니라 결혼, 연애, 사회 생활 등에 있어 당차고 주체적인 의식을 지닌 이른바 ‘신여성’이었다. 김기창과의 결혼(1947년)도 집안의 반대



이미지 제공 국립현대미술관(MMCA) 도봉관 김여진 학예연구사



1 사계절에서 유망했던 입체주의 등의 영향을 받은 박래현의 1950년대 작품을 모은 전시실에서 한 관람객이 꼼꼼히 감상하고 있다. 박래현은 '이른 아침, 노점으로 각종 상을 받는 등 양육과 가사에 시간을 쏟아부으면서도 꾸준히 작가로서의 길을 개척했다. 2 국립현대미술관(MMCA) 덕수궁관에서 열렸던 <박래현, 삼중통역자>展은 청주관으로 무대를 옮겨 간다(전시 기간 1월 26일부터 5월 9일까지). 코뮌-199의 예파로 전시가 중단되는 시기도 있었지만, 이번 전시 콘텐츠를 내실 있게 담은 대도록 1쇄가 출간될 정도로 큰 인기를 모았다. 3 1920년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57세의 나이로 짧지만 '꼭 잘' 삶을 살다 간 박래현. 여성, 어머니, 동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토대로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했다. 일상에서 예술의 소재를 찾고 가사 노동에서 요구되는 수공을 응용해 작품의 표현 기법을 확장했다. 4 <박래현, 삼중통역자>전 풍경. 오른쪽에 일본화에 영향을 받은 초기 수직 단장(1943)이 보인다. 5 1956년 작품 '새, 종이 매체, 162 X 92.5cm, 개인 소장. 6 '일평가사화' 합본(1974). 상신여자대학교 설립자 이승종의 철수를 기념해 여러 사제기와 화가가 함께 제작한 작품. 김기창과 박래현도 합작했다. 7 '침묵의 초연'(1962). 종이 매체, 135 X 120.5cm, 개인 소장. 박래현은 해외여행을 하면서 추상에 눈을 뜬다. 8 '잊혀진 역사' 중에서 시리즈를 비롯해 박래현의 초기 추상 시리즈를 다양하게 선보인 전시실 모습.



류에도 사랑을 택한 것이다. 물론 김기창은 명성 있는 화가였지만 청각 장애가 있고, 박래현 역시 도쿄 유학 시절 재학 중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총독상을 받을 정도로 전도양양한 길을 가고 있었다. 당시의 수상작이 바로 '단장'(1943)이라는 작품이다. 그 시기에는 흔치 않은 검은색을 많이 쓴 대담함이 엿보이는 그림이다. 그런데 결혼한 뒤의 생활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 녹록지 않았다. 관계의 문제라기보다는 '시간이 없어서'였다. 남편을 내조하고 가사와 양육을 동시에 해나가야 했으니 당연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붓을 놓지는 않았다. 대신 자연스레 일상에서 그림 소재를 찾았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이 같은 바쁜 시기를 보내면서도 차츰 일본화를 버리고 수묵과 담채로 당대의 미의식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구현한 '현대 한국화'를 향해 나아갔다는 점이다. 이 시기의 작품을 보면 입체주의 등 서양 화단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있지만 하나의 양식으로 참고했을 뿐 그녀는 한지와 먹을 쓰는 '동양화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화단의 인정도 받았다. 1956년 '이른 아침'으로 대한미협전 대동령상, '노점으로' 국전 대통령상을 받았다. 그녀는 남편인 김기창을 비롯해 중진 동양화가들과 '백양회'라는 친목 단체를 결성해 동양 화단을 이끌었는데, 이를 계기로 해외에서 전시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였다. 1948년부터 1971년까지 김기창과 '부부전'을 12회 차례나 개최하기도 했다. 능력자는 능력자였던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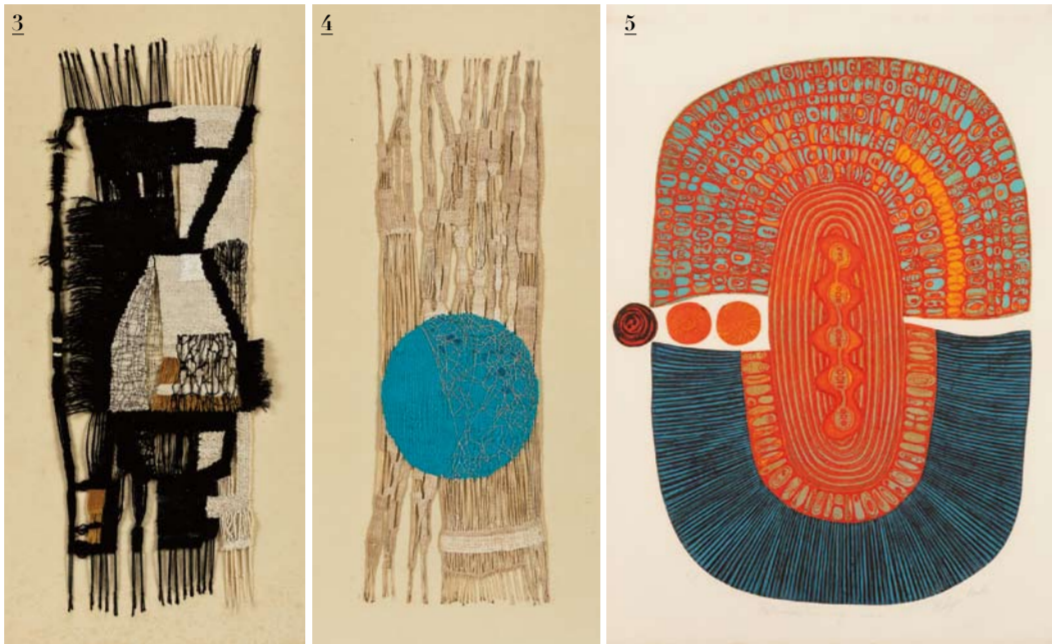
지구촌을 누빈 '삼중통역자', 독자적인 추상의 길을 걷다
 1960년 박래현은 해방 뒤 처음으로 바다 건너 해외 문물을 직접 접한다. 대만, 홍콩, 일본 등지를 돌면서 추상화의 물결을 온몸으로 느낀 그녀는 본격적으로 '추상'에 몰입한다. 이 역시 조형 정신을 그대로 수용했다기보다는 한 양식으로 받아들여 안료나 재료 등을 다양하게 쓰면서 동양화로 풀어낸다. "예민한 동양의 피부랄까. 화선지에 스며가는 먹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색조의 변화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조용한 동양의 멋을 자아내는 우리만이 지닐 수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본다." 직접 남긴 글처럼 그녀는 동양화의 섬세함을 사랑했다. "잊혀진 역사" 중에서는 단일한 제목을 지닌 11점 시리즈는 1960년대 초중반기의 추상 대표작. 장엄한 이 제목을 보고 전시 큐레이팅을 맡은 김연진 학예연구사는 "처음에 는 뭔가 있어 보여서 가져다 썼나 싶었는데, 박래현의 작품을 계속 관찰하다 보니 추상, 판화 등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하나의 초점으로 연결되는 것 같다"고 설명한다. "결국 '시간인 것 같아요. 인류의 근원, 오래된 역사, 오래된 자연 등에 관련된 이미지가 거듭 반복되는데, 그것에 대한 단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시리즈가 아닐까. 동양적인 것, 오래된 것, 장구한 것들 같은 걸 연상하면서 작업한 게 아닐까..." 이번 전시의 포스터와 도록 표지를 수놓은 '띠 초상' 작품들은 독자성을 드러내면서도 그 같은 '근원을 향한 탐구적인' 일관성을 품고 있다. 당시에는 이채로운, 그래서 낯설게도 느껴졌을 밝한 색상이나 무늬의 조합은 골똘히 보노라면 뱃



줄 같기도 한, 생명성을 품고 있는 듯 보인다(태양의 생동감을 황색 빛으로, 살아 있는 인간의 생명을 붉은 피로, 시대에 대한 고민을 검은 침묵으로 표현했다"는 띠 추상에 대한 그녀의 설명도 있다). 그리고 보면 '새나 기도' 같은 1950년대 작품이나 1970년대 작업에도 '생명의 원류'를 다루는 그녀의 관심사가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 '전시 여행으로 해외를 활발히 다닌 그녀는 이국적인 문화를 체험하면서 판화와 테피스트리로도 지평을 넓힌다. 특히 1967년 '국가대표로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중남미를 여행한 뒤 미국에 남아 판화를 배웠고, 1974년 귀국해 판화전을 열기도 한다. 이렇듯 지구촌을 누빈 행적과 이력을 보면 당시에도 대중적인 사랑을 듬뿍 받지는 않았어도 실험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가였음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동양화', '현모양처', '운보 김기창의 아내'라는 여러 수식어의 그늘에 가려진 면이 많았던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이 짧았다. 작가로서 한창 무르익던 시기에 갑작스럽게 갑암이 발병해 1976년 세상을 뜨고 말았는데, 당시 나이가 57세였다.

부단한 도전, 그리고 안타까운 스러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나중에는 '중립화'되는 시기가 있었을 텐데, 안타깝지요." 김예진 학예연구사의 말처럼 50대라는 연령대는 미술가로서 왕성한 시기인데, 그때 쉰인 박래현의 생은 아쉬움을 남긴다. 마지막에 판화와 테피스트리를 익히고 동양화의 표현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한 흔적이 보이기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누구보다 많은 걸 누린 듯하지만 동시에 잠잠 시간이 늘 부족했을 정도로 분주했고, 한시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았던 그녀의 '혹독한' 삶은 열렬한 예술혼을 남들보다 일찍 하늘로 보내버렸다. 그녀가 더 긴 삶을 이어갔다면 남겼을 예술적 성취를 상상해보노라면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면(원래 계획대로)'이라는 가정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녀는 크게 후회하지 않았을 것 같다. 모운숙 시인이 남긴 글귀처럼 "누구보다도 내실을 이룬 삶을 살았기에." 게다가 그녀에게는 사랑하고 존경하기도 한 김기창이라는 '큰 산'이 작가로서 선의 경쟁을 하고 주제 의식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동력이 됐을 것이다. "한 방(작업실)에 펼쳐지는 두 개의 세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 무엇보다 무서운 대결이 아닐 수 없다"고 그녀는 고백하기도 했다. "여성적인 것, 구성, 여성성에 대한 고민이 일관되게 발전했어요. 한계를 자각하기도 하면서요. 하지만 주부로서 여러 역할을 수행하면서 테피스트리 같은(수공) 기술을 익혔고, 결국 이것이 김기창과 박래현의 작품 노선을 갈라놓는 지점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김기창보다도 더 커버리게 된." **글 고성연**



1류자심 신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1966~1967), 종이 매체, 169 X 135cm. 2고대 미술에서 영감을 얻은 구불거리는 노란 띠들이 독특한 미감과 인상을 자아내는 '띠 추상' 시리즈가 전시되어 있다. '뿔방석 시리즈' 또는 '열전 시리즈'로 불리기도 한다. Photo by SY Ko 3 박래현의 테피스트리 작품(1966), 71.8 X 29cm, 개인 소장. 4 박래현의 테피스트리 작품(1966), 61.3 X 20.9cm, 개인 소장. 5 박래현, '시간의 회상'(1970~1973), Etching, 50.5 X 38.5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박래현은 말초에 동양화 외면화 기법의 접목을 시도했다. 6 박래현의 말년 작품 '아침'(1975), 종이 매체, 62.5 X 64cm, 개인 소장.



이 이미지 제공: 국립현대미술관(MMCA) | 도움말: 김예진(학예연구사)

full of joy

시간이 지나도 눈부시게 반짝이는, 기쁨과 행복을 전하는 다이아몬드 풀 파베 워치 & 주얼리.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볼가리 세르펜티 스킨 네크리스** 지퍼와 벨벳, 풍요를 상징하는 뱀을 신상(새 장식 또는 부적으로 사용했던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찬사를 담았다. 이탈리아어로 뱀을 뜻하는 세르펜트는 뱀이 자닌 피부와 역동성을 표현하기 위해 육각 형태의 뱀 비늘 모양을 주얼리로 표현했다.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네크리스 1억2천만원대, 문의 02-2056-0170

타피니 타피니 플뢰르 드 리스 키 펜던트 행운을 가져다주는 열쇠,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의 문을 여는 열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 등 밝은 미래를 부르는 긍정적인 의미의 열쇠를 담아서 이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키 컬렉션. 1890년대 빈티지 열쇠에서 영감을 받아 18K 로즈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6250-8620

피아제 트라디셔널 워치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피아제의 노하우를 모두 담은 워치로 레트로 풍 디자인이 특징이다. 브랜드의 전통 기법 중 하나인 곡선을 표현하는 뛰어난 금세공 기술 덕분에 손목에 착감되는 탁월한 유연함을 자랑한다. 지름 19mm의 18K 핑크 골드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1억4천3백50만원, 문의 02-3479-1802

반젤리프 아멜 프리즐 비트윈 더 퍼져 링 프리즐 컬렉션은 신들바람에 춤추는 꽃처럼 일체

적이고 섬세한 디자인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미려 풀리시 기법으로 완성한 화이트 골드 트 모양 꽃잎에 눈부신 광채를 더하는데, 여기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함을 극대화했다. 1천만원대, 문의 1668-1906

샤넬 화인 주얼리 루반 브레이크릿 샤넬을 대표하는 상징 중 하나로 자리 잡은 리본(ruban)을 모티브로 한 사랑스러운 루반 컬렉션의 오픈 브레이크릿. 18K 베이지 골드에 총 1,871점, 48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가격 미정, 문의 060-200-2700, chanel.com

프래드 샹스 인피니 네크리스 끊임없이 흐르는 물길, 무한대를 뜻하는 수확기호, 두 사람을 단단하게 결속하는 매듭, 특정 문화에서 행운의 숫자라 여겨지는 8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샹스 인피니 컬렉션은 부드러운 곡선 디자인이 특징이다.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함을 자랑하는 네크리스 6천2백82만원, 문의 02-514-3721

부쉐론 시랭 보렐 트라폴 모티브 링 뱀 머리를 상징하는 드루 모티브와 해-곰 틀을 사용하고, 플로 만든 골드 비즈로 뱀 비늘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시랭 보렐 모티브를 세 가지 크기로 제작한 이 링은 리듬감이 특징. 화이트 골드에 31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했다. 1천만원대, 문의 02-3479-6028 에디터 장라윤

dazzling face

손목에 올리는 순간 작품이 된다.
무한한 상상력과 탁월한 기술력으로 특별한
가치를 더한 드라마틱 타임피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유티터 시계 방향) **에르메스 슬림 데르메스 당 장 자르당 앙글레** 막가적인 전원 풍경의 매력에 표현한 엘리스 샐리의 실크 스킵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은 타임피스. 낙타 뼈로 만든 다이얼 위 정교한 페르시안 미니아처 패턴 기법으로 영국식 정원의 정원을 담았다. 7천원대. 문의 02-542-6822

피아제 라일라이트 길라 워치 1973년 출시한 아이코닉 모델에서 영감을 받은 제품으로 클래식한 감성과 매혹적인 아름다움이 공존한다. 푸른빛의 그라데이션 효과를 이루는 소용돌이 모양 베젤이 수작업으로 인그레이빙한 핼리스 테코 브레이슬릿과 어울려져 색다른 관능미를 선사한다. 퀴츠 무브먼트 680P로 구동하며 고유 번호를 기입해 선보이는 넘버드 에디션이다. 1억3천원대. 문의 02-3479-1802

블리리 디어스 드릴 피콕 워치 로마시대에 만든 카리칼라 유물을 테마로 이국적이고 강렬한 색채 조합이 특징. 천연 공작새 깃털로 장식한 다이얼과 부채꼴 링크가 어우러진 대담한 스타일이 돋보이며 은은한 빛이 감도는 사이니 엘리게이터 브레이슬릿을 더해 고혹적인 면모를 자랑한다. 3천4백원대. 문의 02-2056-0170

빈클라프 아벨 참 로렌스 파리지엔 링롱트르 타임피스 변치 않는 아름다운 로렌스에 대한 찬사.

화이트 마더오브밀 미니아처 패턴, 상르에-멜 기법 등 고난도 장식 기법을 활용했으며, 색안 빛이 드러난 홈 데 자르 다라에서 두 연이 저울마 주된 순간을 그렸다. 베젤을 따라 다이얼과 핼크 사파이어로 장식한 케이스에 달린 특유의 참 장식은 낭만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한다. 7천원대. 문의 1668-1906

로저드워 블로섬 벨벳 블루 감각적인 곡선과 세련된 세공법으로 꽃의 핀자리를 그려낸 제품. 영롱한 빛을 띠는 자개 다이얼 위 그랑 피 에-멜 아틀라케 장식과 화이트 골드 줄기 조각으로 기품 있게 장식했다. 베젤과 러그, 토노의 다이얼 중앙에 다이얼을 세팅해 화려함을 강조하며, 재빠바 품질보증 트랜스피 각인을 전면에 새겨 클래식함을 입증한다. 전 세계 88피스 판매하는 리미티드 에디션. 1억4천500원. 문의 02-3213-2244

디올 워그 그릴 36MM 무수 디올이 사랑했던 환상적인 무도회를 재현한 컬렉션. 디올 메종 아틀리에의 화려한 파티 드레스를 연상시키는 다이얼이 눈길을 끈다. 로즈 골드 스레드 장식으로 은은하게 빛나는 블루 다이얼과 입체적인 로터 장식이 어우러져 오묘한 매력을 뽐낸다. 섬세한 빛을 발하는 스노 세팅 다이얼로 베젤로 다이얼의 화려함을 한층 강조했다. 중심 50m의 생활 방수 기능과 42시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췄다. 가격 미정. 문의 02-3480-0104 에디터 **이유미**

his essentials

손목에 세련된 애틀리트를 더할 하이 주얼리 메종의 시그너처 브레이슬릿.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유티터 시계 방향으로) **다이아니 메트로폴리탄 브레이슬릿** 간결한 핼크 형태의 블랙 골드 보드에 스텔적으로 다이얼을 세팅해 강인하면서도 화려한 매력을 강조했다. 5백29만원. 문의 02-3213-2141
프록트 포스텐 라지 브레이슬릿 옐로 골드와 화이트 골드를 혼용한 아이코닉한 버클과 그레이 스틸 케이틀의 감각적인 조화가 돋보이는 모델. 3백83만원. 문의 02-514-3721
타파니 타파니 T1 네로우 린지드 핼크 브랜드를 상징하는 알파벳 T 모티브를 형상화한 기하학적 디자인이 아름다운 제품. 단독으로 착용할 뿐 아니라 다른 워치, 주얼리와 함께 레이어링해도 멋스럽다. 가격 미정. 문의 02-6250-8620
블리리 세르펜티 바이퍼 브레이슬릿 핼크 비늘 모티브의 로즈 골드 보드에 오닉스를 교차 세팅했다. 은근한 포인트 주얼리로 재킷이다. 7백만원대. 문의 02-2056-0170
샤넬 화이트워드리 코코 크러쉬 브레이슬릿 남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코코 크러쉬 컬렉션의 옐로 골드 브레이슬릿. 하우스 고유의 핼크 모티브를 인그레이빙했다. 가격 미정. 문의 080-200-2700. chanel.com
부세르 퀴르 드 파피라이트 핼크 핼크 광장의 자갈길에서 영감을 얻은 그레픽 모티브의 화이트 골드 브레이슬릿. 알고 싶은 디자인으로 여러 개를 함께 착용하면 더욱 멋스럽다. 6백만원대. 문의 02-772-3508
에디터 야혜미

Portrait of Her

'위험한 아내'로 분했던 배우 김정은이 다시 카메라 앞에 섰다. 유연하지만 강인하고, 신중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그녀 자신의 모습으로. photographed by **jang duk hwa**



건축적 실루엣의 싱글브라스트
카프 레더 코트 8백만원대, 벨트 1백만원대,
피사넷 앵글부츠 1백만원대 모두 **렌디**.



드로스트링으로 허리 라인을 조절할 수 있는 레드 폭스
레더 셔츠 드레스 74만원 **보스 우먼**, 블랙 스트레치
나파 레더 사이용이 피크 부츠 2백54만원 **알렉산더
맥퀸**, 블랙 램스킨 글러브 가격 미정 **에르메스**, 세팅
보행 상급 스타드 라피스 라줄리 이어링 4백만원대,
세이슨가죽에 착용한 세팅 보행 원헤드 러지 화이트
골드 링 3천만원대 모두 **부시넬**, 약제 착용한 클러쉬
드 까르띠에 핑크 골드 링 3백만원 **까르띠에**.



더블 페이스 캐시미어 블레어 재킷, D 버클 벨트 디테일 니파 레더 롱 재킷, 실크 캐시미어 혼방 하이넥 스웨터, 블랙 질러트 팬츠, 지퍼 장식 사이드 하이 부츠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오픈숄더 감자에 착용한 코트로 레디언트 다이아몬드 라지 링 1천만원대, 왼손 약지에 착용한 코트로 레디언트 옐로 골드 라지 링 4백만원대 모두 **부세론**, 왼손 중지 착용한 2개의 핑크 골드 링 중 중앙 밴드에 8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포제션 링 4백60만원대, 2백34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포제션 링 2천2백만원대 모두 **피아제**.





볼륨감 넘치는 78학적 디자인이 매력적인 클래쉬드 카르피에 핑크 골드 이어링 4990만원 가루디에.



화려한 플로럴 프린트 코트, 플리워 양브로아다리 레이스 드레스, 이-로 착용한 브리프, 브리프 모두 가격 미정 디올, 올림드 핑클립 이어링 2만원대 부세븐.

레드 컬러 풀오버, 오버올 스타일의 롱스킨
 정프수트, 브라운 레더부츠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더블 랩 스타일의 포제션 오픈 백글
 핑크 골드 브레이슬릿 1천1백만원대, 감자에
 착용한 포제션 핑크 골드 링 4백60만원대,
 약자에 착용한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 포제션 핑크
 골드 링 2천2백만원대 모두 **파이에**.



오버핏 싱글브래스트 재킷,
 바세인 네트과인 저지셔츠,
 아이보리 컬러 와이드 플린츠
 모두 가격 미정 **우영미**,
 클러쉬드 카본파에 핑크 골드
 네트과스 4백42만원 **까르띠에**.

헤어 조미연
 메이크업 김무성
 스타일리스트 사혜지
 칸트리뷰팅 에디터 심우찬
 스타일링 - 에디터 이혜미

까르띠에 1566-7277
부부론 02-772-3508
파이에 02-3479-1802
렌디 02-514-0652
보스 우먼 02-515-4088
일렉산더 맥퀸 02-6905-3472
디올 02-3480-0104
에르메스 02-542-6622
우영미 02-515-8897



relaxing time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면 시간. 그렇기 때문에 질 좋은 잠은 삶의 균형과도 직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노시즌이 숙면과 휴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고급 호텔 베딩 시스템을 내 집 안방에서

소노시즌은 30년간 소노호텔&리조트에서 쌓은 휴식의 기술을 일상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오롯한 휴식을 위한 라이포스타일 설계에 초점을 맞춘다. 첫 번째 주자는 어드밴스 매트리스. 고급 호텔에서 경험한 포근하면서도 아늑한 베딩 시스템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고안한 이 제품은 매트리스의 본질에 충실하며, 소재 제작부터 가공에 이르기까지 모두 독일 현지에서 진행해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한다. 신체 균형이 무너진 수면 자세는 숙면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결림, 통증 등의 불편함을 불러오게 마련. 어드밴스 매트리스는 3단계 레이어 구조의 고밀도 매트리스 폼으로 체압을 고루 분산해 몸 전체를 섬세하게 감싸고 균형 있게 지지해주어, 장시간 수면 중에도 편안하고 바른 신체 균형을 이루도록 돕는다. 적절한 체온과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침구의 역할. 유칼립투스 나무 추출물로 만든 친환경 소재 텐셀 원단으로 보송한 촉감을 선사한다. 매트리스에 적용한 에어 쿨링 시스템으로 통풍이 잘돼 수면 중 발생하는 신체의 발열감을 낮춰주고 공기 순환을 높여 적정 쾌면 온도와 환경을 관리한다.

안전하고 오롯한 숙면을 위해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 수면의 질은 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소노시즌은 꿀잠을 위한 기능성뿐 아니라 마음까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안전성까지 고려했다. 세계적인 권위의 품질 테스트인 TUV LGA에서 매트리스

완제품의 내구성과 안전성 모두 인증을 획득한 것은 물론 메모리폼부터 커버와 지퍼 등 까다롭기로 정평이 난 유럽 오코텍스 스탠다드 100에서 1등급을 인정받아 유아 및 3세 미만 영아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또 독일의 라돈 인증 전문 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받아 밤잠잠들지 못해 걱정하는 라돈으로 인한 위험성에서 자유롭다. 청결에 특히 유의하게 되는 요즘, 어드밴스 매트리스는 분

리형 이중 커버로 집에서 간편하게 세탁 및 관리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이다. 상단과 하단의 지퍼를 이용해 커버와 매트리스를 손쉽게 분리할 수 있으며, 세탁기 사용 및 일정 온도 이하의 물에서 손세탁도 가능하다. 견고한 내구성에 사용자를 위한 섬세한 배려로 쾌적한 침실 환경을 제공하는 소노시즌과 함께라면 길어지는 '집콕'도 즐거운 일상이 될 것이다. 문의 1566-8400 에디터 **이유이**

1 에어 쿨링 시스템을 적용한 3단계 레이어 어드밴스 매트리스. 2 유럽의 친환경 섬유 인증 기관 오코텍스 스탠다드 100 1등급을 획득해 유아 및 3세 미만 소아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3 파스화면셔도 자연스러운 침실 분위기를 연출하는 최고급 친환경 목재와 세련된 디자인. 4 베딩 시스템을 이용하면 고품격 매트리스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the best Light

그 자체만으로도 완벽하게 빛나는 디자인 오브제, 조명.

반디탄의 타이틀 램프 골드만 가격 미정 **플로스 by 두오오**, 02-516-7083



아래쪽으로 향하는 빛이 눈부심 없이 부드럽게 분산되는 $ph3\frac{1}{2}$ -3 반디탄 가격 미정 **루이스 폴센 by 넥서스**, 1670-1950



1932년 존 폰타가 디자인한 가장 균형 잡힌, 기본에 충실한 조명 빌리야 테이블 램프 1백9만원 **폰타나 아르떼 by 넥서스**, 1670-1950

마크네브 조인트 덕분에 쉽게 이동하고 부착할 수 있는 포스트 램프 43만8천원 **무토 by 진블랑**, 070-7704-0830



덴마크에서 온 모던한 클래식 램프 99만원 **플리즈 웨이트 루비 시티드 by 이노에사**, 02-3463-7752

미야모 비베르의 1956년 작품. 선을 따라 은은한 빛이 자연스럽게 퍼지는 테이블 램프 1백89만원 **베니 by 리아**, 02-6480-8850



아이들의 얽은기가 어른에 비해 낮고 시야가 좁은 데 착안했다. 머리와 손 그림자를 만들지 않는 수납용 조명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어린이 스탠드 발뮤다 더라이트 49만9천원 **발뮤다**, 02-710-4100

정교하게 조각한 투명 크리스털과 플로스의 LED 에지 조명을 결합해 탄생시킨 볼주르 베르사이유 램프 리지 4백20만원, 스몰 1백80만원 **바카라**, 02-3448-3778



880-516-7083 **두오오 by 넥서스** 02-516-7083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볼 아래쪽부터 7등을 거쳐 글라스 반창까지 3등인의 섬세한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배럴 컵 주피터 글라스 35만원, 여러 개의 면으로 정교하게 깎아 빛의 투과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한 스윙 볼 15만원, 스윙 볼 아래 세팅한 투명한 크리스털 스윙 플레이트 15만원, 왼쪽 상단과 동일한 모델의 주피터 글라스 35만원, 스윙 스몰 볼 25만원(2개 세트), 스윙 스몰 볼과 그 아래 디스클레인 안 아코어 플레이트 15만원 모두 **바카라**, 문의 02-3448-3778



표수린 페안터 나탈리 롤랑위켄(Nathalie Roland-Huckel)의 손을 통해 식물의 싱그러움 아름다움을 생동감 넘치게 재현한 파시플리아(Passiflora) 컬렉션. 자연의 다양성, 독창성, 관대함에 대한 찬가의 의미를 담았다.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티 컵과 소서, 티포트, 커피 캡과 소서, 디너 플레이트, 디저트 플레이트, 사이드 플레이트 모두 파시플리아 컬렉션으로 가격 미정, 골드 컬러 디너 포크와 디너 나이프 가격 미정 모두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dine in style

취향과 심미안을 반영한 식탁 풍경을 완성해줄 프리미엄 테이블웨어.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황제의 꽃, 부귀영화, 공명을 상징해 조선시대 왕실에서 즐겨 사용했던 문양인 목단모란의 아름다움을 담은 '해리타지 목단' 컬렉션. 도자 장인이 백자에 박지 기법으로 조각, 전통 수공 도자기 특유의 우아함을 강조했다.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낮은 찻잔과 찻잔 받침(현화) 25만원, 디저트 접시 17호(현화) 25만원, 디저트 접시 22호(현화) 30만원, 낮은 찻잔과 찻잔 받침(백) 25만원, 디캔(현화) 49만원 모두 해리타지 목단 컬렉션 **광주요**, 문의 02-400-9939



1892년 처음 선보인 시갈(Seagull) 리안에서 영감을 얻은 '하위(HAV)' 컬렉션. 덴마크어로 바다를 뜻하는 하위 컬렉션은 총 아홉 가지 도자기로 구성, 물고기 비늘 모양 장식과 푸른빛의 에어 브러시 페인팅으로 구현한 독창적인 디자인이 돋보인다. (위부터) 카바페 39만원, 티말 머그 15만9천원, 지름 22cm의 플레이트 14만8천원, 지름 27cm의 플레이트 18만원, 하이브리드 볼 59만원 모두 하위 컬렉션 **로안크레디엔**, 문의 02-749-2002 **에디터 이혜미**

에디터 정관영

에디터 조소희

begin again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집에서 하는 간단한 운동조차 쉽지 않은 요즘, 집에 머무는 시간도 많아지면서 홈트레이닝과 홈스파 등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새해엔 새 마음으로 시작해보자. 혼자서 쉽고 편하게, 효과적으로 보디라인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뷰티 디바이스, 실근 고주파 보디 관리기 실루엣. photographed by lee de hee



안전하고 효과적인 기술

대부분의 뷰티 디바이스나 의료 기기는 필요한 곳에 열을 전달해 주름과 탄력을 개선하고 매끈한 라인을 만들어준다. 그만큼 열은 피부나 라인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에너지. 실근에서 선보이는 보디 관리기 실루엣은 열뿐만 아니라 HT™(Home Tightening) 기술을 통해 바이폴라 고주파 에너지(RF), LED 레드라이트, 열 에너지를 동시에 이용해 피하지방을 자극한다. 바이폴라 고주파 에너지는 피부 진피층에 침투해 피하지방을 자극해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고, LED 레드라이트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를 재생시켜 피부 톤을 개선해주며, 열 에너지는 고주파 에너지와 LED 레드라이트가 피부 깊숙이 도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이 열 에너지가 발생시키는 심부열은 표피의 손상을 방지하고 진피층의 콜라겐 재형성을 위한 적정 온도인 40~43°C를 넘지 않도록 한다. 사용 시 피부 온도를 자동 측정해 열 에너지도 42~43°C로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이기도. 고민되는 부위에 일주일 두 번, 10주 동안 꾸준히 사용하면 달라지는 보디라인을 느낄 수 있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콤팩트한 디자인

외출이 줄고, 집에서만 생활하다 보면 보디 사이즈가 조금씩 늘어나기 마련. 얼굴 피부 못지않게 중요한 보디라인도 관리해야 할 시기다. 한 손으로 잡았을 때 쏙 감기는 동그랗고 콤팩트한 사이즈는 신체 모든 부위(특히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등, 흉부, 배, 팔 등)에 사용하기 용이하다. 간단한 운동 또는 스트레칭 후 실근 실루엣을 이용해 마사지하면 더욱 효과적. 보디 피부를 매끄럽고 탄력 있게 관리할 수 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하다. 전원을 켜고 1~3단계 중 피부에 맞는 단계를 설정한 후, 출력창에 적당한 양의 슬라이더 히알루론산 젤을 도포하고 원하는 부위에 출력창을 밀착시켜 상하좌우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된다. 집에서 간편하게 스스로 할 수 있는 홈케어 뷰티 디바이스 각광받고 있는 지금, 실근 실루엣과 함께 슬기로운 홈트족이 되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해보자. 문의 080-246-1234 에디터 정미윤



● sponsored by silk'n

editor's Pick

뉴이어, 뉴뷰티 아이템 13,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캘리포니아 스킨케어** **젤리 크림** #940 마이 푸즈 미크로퍼트 발리는 부드러운 크리미 텍스처로, 매트 매트도 탈립함 없이 모공과 선풍한 질러가 그대로 발색된다. 허탈루산, 시아버데, 로즈 페탈 추출물을 함유해서인지 건조함 없이 마무리되는 느낌도 함께, 어서 마스크를 벗고 선풍하고 볼륨감 넘치는 입술을 뽐내고 싶다. 2.8g 4만2천원. 문의 080-343-9500_by 에디터 이주이

메이디업에이머 스텝인 프라이머 뉴트랄라이저 옐로 기가 싹씩 도는 에디터의 피부 톤을 한층 밝게 표현해주는데 자연스러운 모공 커버도, 유분을 가볍게 잡아주는 것도 만족스럽다. 지속력도 좋은 데다 촉촉한 수분 파우더로 백점 만점에 백 점 30ml 5만2천원. 문의 080-514-8942_by 에디터 이주이

구피 마스크라 유스쿠를 주변 메이디업 아티스트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제품. 직접 사용해본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유연하게 휘는 알라스토머 브러시를 단 애플 라이터로 크리미한 포클라를 소량 버니니, 순순히 용침 없이 깊고 깊어졌다. 서너 번 덧바르면 1980년대를 연상시키는 핑크 무드의 아이 메이디업이 연상될 만큼 드라마틱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6.5ml 4만2천원. 문의 080-850-0708_by 에디터 이혜미

닥터지 엑스퍼트 큐어톤 리페어 크림 일교차와 민감한 피부를 지니 1년 3백65일 재생과 진정에 도움을 주는 시카 크린을 달고 산다. 최근 사용하기 시작한 이 제품은 포클라 속 작은 알갱이가 톱톡 타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 특별하다. 바로 닥터지의 특허 성분 인텔리진인 엑스브 콜라겐을 담은 유산균 캡슐이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출고 간조한 남자와 마스크로 벨란스가 무너진 피부에 이만한 처방이 없다. 50ml 5만원. 문의 1811-9415_by 에디터 이혜미

라이프와이즈 수퍼차지 에센스 미스트 아무리 유분이 많은 지성 피부라도 건조한 겨울 공기 앞에선 무너지기 마련. 이때 필요한 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칩칙 뿌릴 수 있는 미스트다. 분리되어 있는 수분층과 오일층이 상도록 흔들어진 후 사용하면 수분을 채워주고 오일로 촉촉하게 잡아주는 똑똑한 이중 보습 아이템. 100ml 2만9천원. 문의 02-3677-9703_by 에디터 이주이

엘브린 팔팔링 크림 & 릴리프 팔팔링패드 각질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최근 들어 피부에 요즘이 상흔진 것을 느꼈고, 이 제품으로 데일리 케어를 시작했다. 볼록한 엘브린 면과 평평한 릴리프 면을 갖춘 손바닥 크기의 토너 패드를 사용해 각질을 제거하는 동시에 수분을 보충할 수 있어 간편하다. 민감한 피부인데도 자극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매우 흡족했다. 6g X 20매 1만9천원. 문의 02-543-0509_by 에디터 이혜미

골드본 보미 프레스스 골드 바이탈리티 마스크 향산화 작용을 돕는 순도 높은 골드를 사용해 스트레스와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고 에너지를 더해준다. 함께 들어 있는 진열 브러시를 사용하면 부드럽게 발려 마취 스킨케어 관리받는 듯한 기분이 든다. 한 번에 채워 할 일 크기 만큼, 주 2회 사용을 권장한다. 에디터의 피부는 사용 전과 후로 나뉜다. 75ml 3만9천원. 문의 080-564-7700_by 에디터 정미윤

겐조 클리닉아민젠조 포피 부케 EDP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기 좋은 시아즈의 휴대용 오드 퍼퓸. 클리닉아민젠조의 아이코닉한 불가마탄 로즈 향기에 기르데-아, 아몬드 우드, 페이노트 등을 조합했다. 기존보다 훨씬 선유하고 성숙한 느낌이 들어 30~40대 여성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한 향이다. 10ml 2만2천원. 문의 080-344-9500_by 에디터 이혜미

미순 병물 에센스 순수함을 수컷하는 의미의 미순. 동물 실험은 물론, 동물성 원료도 배제했다. 좋다는 원료를 이것저것 섞지 않고 단 하나의 성분에만 집중한 에센스는 녹두, 노니, 연꽃, 판백, 콩, 영차차, 홍삼 등이 있는데 그중 병물 에센스는 마스크 때문에 애용했던 피부를 진정시키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기능이 있다. 단독으로 발라도 좋고, 평소 사용하는 기존 제품과 섞어 사용해도 좋다. 100ml 3만2천원. 문의 070-7730-5659_by 에디터 정미윤

데코르테 비타 드 레브 2021 뉴 이어 에디션 로즈메리 잎수, 클로브 꽃 추출물, 세이지 잎 추출물 등 허브 성분이 함유된 수딩 워터 에센스. 산뜻하고 가볍게 흡수되는 기본 좋은 제형으로 피부를 진정시키고 매끄럽게 가꿔준다. 화장실에 들락치서 5분간 피부에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차분하게 정돈되는 변화할 느낄 수 있을 것. 150ml 5만7천원. 문의 080-568-3111_by 에디터 이주이

상향미 쿠마레틴 아이 세이트 #얼룩말 얼룩 위가 처한 아프리카 얼룩말 사진으로 전원을 장식한 케이스에 로즈 골드 컬러를 담았다. 비건 프렌들리에 판매의 금 입부는 얼룩말 보호에 앞장서는 비영리 동물 보호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라고 하니 어찌로 축하다. 부드럽게 발리고, 기루 날라니 크리미 향이 차가운 느낌에 촉촉(7)하는 기능성도 만족. 다른 컬러 세트도 라이어해 사용하면 더욱 드라마틱한 연출을 할 수 있다. 2.5g 7만2천원. 문의 070-4370-7511_by 에디터 이주이

존 바버트스 XX 아티스톤 20주년 스페셜 에디션 중 XX 아티스톤은 산뜻한 베르가모트 향과 월우드의 이브라 향, 사두우드의 그득한 향을 함께 느낄 수 있다. 도시에서 만나는 한가롭고 평온한 향이랄까. 아티스톤 보틀의 시그니처인 핸드 우원을 실물로 재현해 더욱 고급스럽고 특별한 느낌이다. 남성용 산들로 제작될 듯하다. 125ml 1만2천원. 문의 080-363-5454_by 에디터 정미윤

이솜 아가니스 아로마틱 캔들 유명한 고대 천문학자의 이름을 붙인 세 가지 아로마 향초 중 아가니스 아로마틱 캔들은 달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유명했던 첫 번째 여성 천문학자의 이름을 따. 향기로운 플로랄과 스프라이트한 향을 닮았는데, 살짝 자극적인 듯한 느낌이다. 동물 유래 성분을 배제한 것도 마음에 든다. 삼가까지 코트 소재를 사용했고, 연소 시간은 55~65시간이다. 300g 1만2천원. 문의 1800-1987_by 에디터 정미윤



SHOWROOM

BEAUTY



실론 실루엣 글로벌 홈케어 뷰티 디바이스 전문 브랜드 실론 코리아는 다가오는 새해, 고추파 보디 관리기 실루엣을 1월 한 달간 50% 할인한다. 또 고추파 에너지의 전도율을 높이고 주름 개선과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업그레이드한 프레스티지 다이아몬드 젤 3개를 추가로 증정한다. 문의 080-246-1234

자방시 뷰티 루나 뉴 이어 2021 컬렉션 2021년 루나 뉴 이어 출시를 기념해 워베르 드 자방시는 아름다움과 전통 예술을 담은 르 루즈와 프리즘 리브르 리미티드 에디션 선반이다. 레드와 골드 컬러 패키지를 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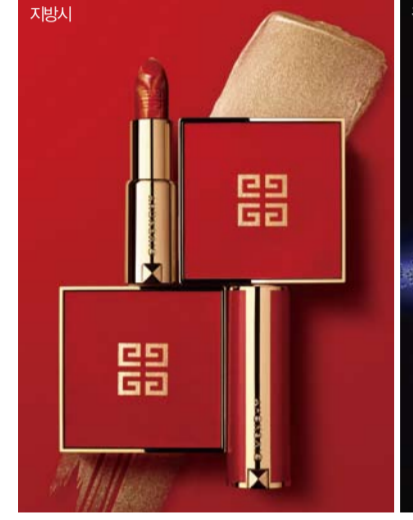
은 르 루즈와 프리즘 리브르 리미티드 에디션은 캘리그래피 스타일의 브러시 터치 박스에 담겨 있다. 문의 080-801-9500

메종 마르젤라 레플리카 온더고 삶의 여러 순간 속 기억을 담고, 잊힌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메종 마르젤라 레플리카 온더고(ON-THE-GO)에서 30ml 컬렉션 선반이다. 간편하게 소지할 수 있는 포켓 사이즈로 137가지 레플리카 중 127개로 구성했다. 문의 080-363-5454

캘리데보 보베 프레스스 골드 바이탈리티 마스크 예로부터 아름다움을 위한 재료로 주목받아온 진귀한 골드와 콜레드보 보베의 기술력이 만나 골드 성분을 한층 더 안정화하고 확실한 효과 전달이 가능한 립서리 워시오프 마스크를 출시했다. 풍부한 수분과 영양 공급을 통해 피부에 에너지 보충하고 광채와 탄력 개체에 도움을 준다. 문의 080-564-7700

데코르테 2021 뉴 이어 에디션 새해를 맞아 출시하는 특별 한정판 2021 뉴 이어 에디션은 향연의 불꽃 디자인을 담은 특별한 패키지가 인상적이다. 이번 에디션에서는 데코르테의 명실상부한 베스트 아이템인 모이스처 리포솜, 프라임 리페, 비타드 레브를 모두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80-568-3111

라이프와이즈 수퍼퍼지 수분 전문 브랜드 라이프와이즈에서 겨울철 보습 케어를 위한 수퍼퍼지 리네 신 제품을 추가했다. 기존 파스트 오일과 크림 앰플에 이어 소프트닝 패드와 에센스 미스트, 립밤, 그리고 핸드 밤을 더한 것. 그중에서도 소프트닝 패드는 각질 케어가 가능한 와플 면과 결 장리를 위한 부드러운 면으로 양면 사용 가능한 수분 부스팅 패드 라 더욱 기대가 된다. 문의 02-3677-9703



반클리프 아펠 윈터 플라워 계절의 변화에서 영감을 받아 매해는 달인 자연의 아름다움을 기념하는 반클리프 아펠. 올해는 1970년대에 처음 소개한 모티브를 재해석해 새로운 로즈 드 노엘을 선보인다. 팬던트 및 이어링으로 구성했으며 화이트 머더오브펠 버전과 라피스 라줄리 버전을 준비했다. 문의 1668-1906

브라게 클래식 7145 Year of the OX 브라게는 2021년 신축년 소의 해를 맞아 클래식 7145 Year of the OX를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8개만 제작한다. 다이얼을 가로지르며 펼쳐지는 섬세한 부채 모양의 수궁 연진-터닝(기요세)과 동양 문화에서 끈기와 정직함, 근면함을 상징하는 두 마리 황소를 표현한 정교한 인그레이빙 공예 기법이 관전 포인트다. 문의 02-3149-9559

론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오픈 1832년 스위스 샹타미에 지역에서 탄생한 스위스 시계 브랜드 론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3층에 오픈했다. 브랜드 고유의 아티팩티를 보여줄 수 있는 콘셉트로 매장 디스플레이를 완성해 론진만의 헤리티지를 무게감 있게 표현했는데, 론진 스피릿 프레스티지 에디션 등 일반 매장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상품도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79-1940



분다삼 가브리엘라 하스트 전 세계 여성 명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브랜드 가브리엘라 하스트가 분다삼 신세계 강남과 창동점에서 1월 17일까지 백 인스톨레이션 선반이다. 가브리엘라 하스트는 지속 가능한 패션이라는 브랜드 정책 아래 모든 가죽 제품을 주문 제작 방식으로 판매해 전 세계적으로 웨이팅 리스트가 있을 정도로 모두가 기다리는 아이템. 그러나 이번 분다삼 백 인스톨레이션에서는 바로 구매가 가능하며, 스타디셀라인 나나, 데미, 다이애나부터 새로운 라인으로 출시한 바에즈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02-2056-1234

살바토레 페라가모 칸치니 벨트 베스트셀러이자 모든 세대를 위한 아이코닉 액세서리인 칸치니 벨트는 이니셜과 기호 등 버클과 함께 맞춤 주문 제작이 가능하다. 전 세계 24개의 선택된 부티크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개인 맞춤 서비스로, 연말연시 소중한 사람을 위한 완벽한 선물이 될 것이다. 문의 02-3430-7854

워렌거 기방걸이 도서관, 사무실, 카페 등 좁은 공간에 기방을 마땅히 둘 곳이 없어 불편했던 경험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평소 기방 손잡이에 달 수 있는 액세서리 또는 팔찌로 착용하다 필요 시 기방걸이로 사용 가능하다. 두꺼운 책상에도 걸 수 있어 매우 실용적이다. 문의 010-8387-2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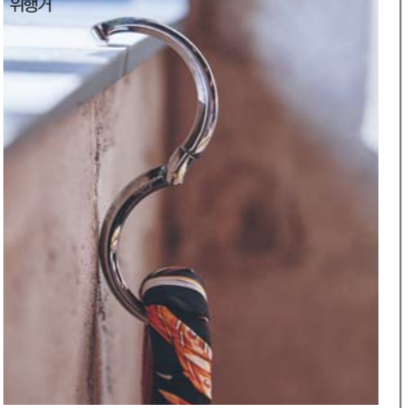
올세인트 피피 패치 재킷 영국 프리미엄 캔틸퍼리 브랜드 올세인트에서 페이크 퍼 재킷을 선보인다.



톤톤톤 페이크 퍼 패치가 특징으로 방한 실용성과 부드러운 소재가 멋스럽다. 데님 팬츠, 스커트, 드레스 등에도 잘 어울려 믹스 & 매치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문의 070-4757-7604

호간 인터랙션 자연과 건축물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도심 풍경을 슈즈에 담았다. 초경량 볼륨, 빈틈없는 디자인, 온기를 지켜주는 네오프렌으로 완성한 캔틸퍼리 한 슈즈 인터랙션은 헤리티지와 혁신의 조화를 보여준다. 문의 02-540-0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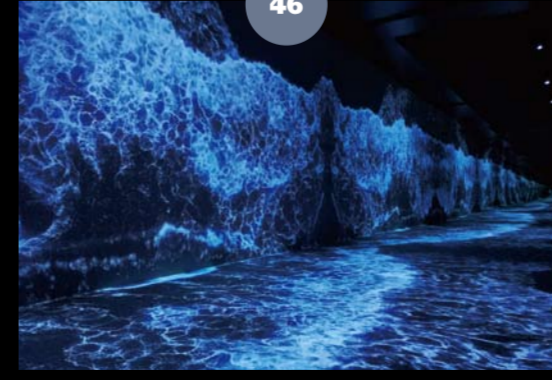
빅토라누스 레스큐 눈을 내린 뒤 강추위까지 감당하면서 블랙 아이스도로 위 실업으로 인한 출근길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요즘,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의 안전을 위해 총 157가지 기능을 장착한 스위스 메이드 빅토라누스 레스큐를 제안한다. 자동차 안전유리 절단용 톨과 비상 탈출용 창문 망치, 안전벨트 절단용 나이프는 차량 참수 또는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차량 유리창을 깨고 탈출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다. 문의 02-546-8864



FASHION

No More Guerrillas

"왜 서양 미술사에서 여성은 위대한 예술가로 '여가자' 없었는가?" 미니스케에 망사 스타킹을 신고 고릴라 가면을 뒤집어 쓴 채 공공 장소에서 상처, 인종차별 철폐를 외치며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펼치는 여섯 예술가 그룹 게릴라 걸스(Guerrilla Girls), 이 그룹은 1988년 자신들의 시각과 관점을 담은 서양 미술사 책을 내면서 서두에 이렇게 질문했다. 이는 왜 서양 미술사에 위대한 여성 예술가는 없었는가? 라는 린다 노클린(Linda Nochlin)의 유명한 1971년 논문 제목을 비틀어 던진 것이었다. '여성'과 '예술'이 키워드로 나오면 자주 인용되곤 하는 린다 노클린은 "없이 있어 백인으로도, 중산층으로도, 그리고 특히 남자로 태어날지 못한 모든 여성에게 예술은 수십 개의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단조롭고 숨막히고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존재"라고 일갈하면서 여성 예술가들이 "흥미롭고 훌륭하다(interesting and very good)"는 평까지 들을 수 있어도 "최고로 위대한(supremely great)" 인물은 되지 못한 원인으로 제도와 교육을 꼽았다. 21세기의 풍경은 확연히 달라졌다. 물론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실제로는 여성 아티스트의 입자가 더 나빠졌다는 논쟁적인 의견도 있지만, 확실히 굳이 '여성'을 찾지 않아도 될 정도로 미술계의 토양은 다른 빛깔을 띠고, 이는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서문에 실은 채 최근 한국에서도 발간된 <위대한 여성 예술가들> 같은 책에도 지역이나 인종, 국적별 '불림'이 있음을 차치하더라도 말이다. 사실 'Art+Culture' 스페셜에서는 '차별'이나 '역차별'이 하는 논쟁보다는 '빼어난', 그리고 잠재력이 풍부한 현대 미술계 여성 인재들을 소개하기에도 자원이 한없이 부족하다는 '한트'를 선사하고자 했다. 여성이든 소수자든 더 이상 '게릴라' 작전 같은 걸 펼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길 바라면서, 글 고정연(아트+컬처 총괄 디렉터)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대단하고 오래가는 뭔가를 경험하기 위해 예술을 향유한다. 그런 맥락에서 실패의 위험을 무릅 쓴 채 온몸을 던진 작품을 만나는 건 예술의 변치 않는 매력이다. 이런 예술가들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창조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삶의 본모기를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우연한 걸작>이라는 책을 쓴 미술 평론가 마이클 키멜만은 놀랍도록 용기 있고 독립적이던 현대미술가의 한 예로 제이 드페오(Jay Defeo)라는 여성 아티스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성장한 그녀는 1958년부터 대형 캔버스에 별로 닮은 점은 없지만 '장미'라 이름 붙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유기적인 형태를 실험하면서 여러 겹의 층을 쌓는 방식으로 무려 8년 동안이나 이 작업에 매달린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어느 회의실 벽에 간헐적인 드페오의 '장미'를 꺼내기 위한 움직임이 일었다. 결국 뉴욕 휘트니 미술관은 당시 25만 달러의 기금까지 조성했고, 결국 '장미'는 다시 살아났다. 인생을 건 드페오의 도전 정신이 담긴 이 무겁고 거대한 캔버스 작업은 무게만 1톤이 넘었고, 기술자 8명이 달라붙어 그림을 설치했다고.

요즘 서울을 산책하다 보면 곳곳에 '미래의 드페오'가 될 법한 여성 작가의 전시가 눈에 띈다. 양혜규, 구정아 등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소위 '스타' 작가의 전시뿐만 아니라 그 뒤를 잇는 '젊은' 여성 작가들의 전시가 다양하게 펼쳐지는 모양새다.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을 듯하다. 미술계에서는 1980년대부터 작가 진출 양상이나 미술대학교 재학생 구성을 보더라도 여성 인제가 다수였던 데다, 2000년대 들어서는 그 비중이 더 커졌으니 말이다. 요즘 주목받고 있는 정희승 작가는 보수성이라는 측면에서 미술을 이야기할 때 또래 남자 작가들보다 여성 작가들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한국미술관 학예연구원 출신으로 부산 복합 문화 공간 F1963의 기획자인 강재영 맥그로브아트웍스 대표는 최근



미래의 '드페오'가 될 법한 여성 작가들의 전시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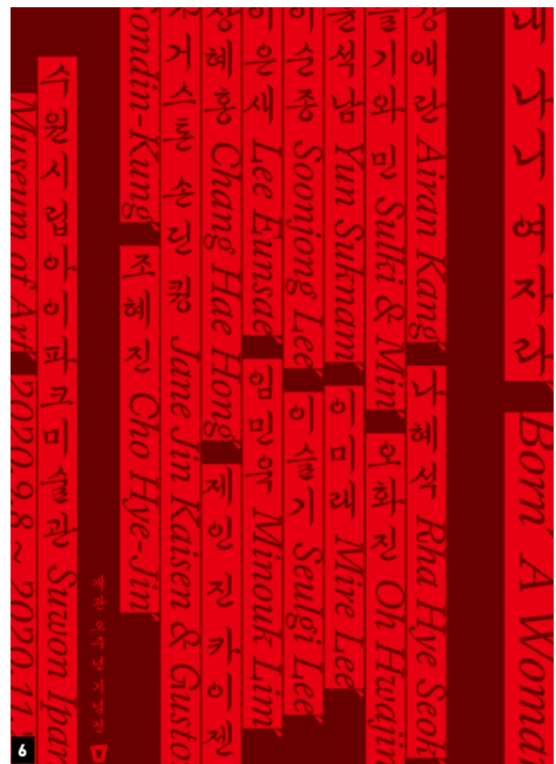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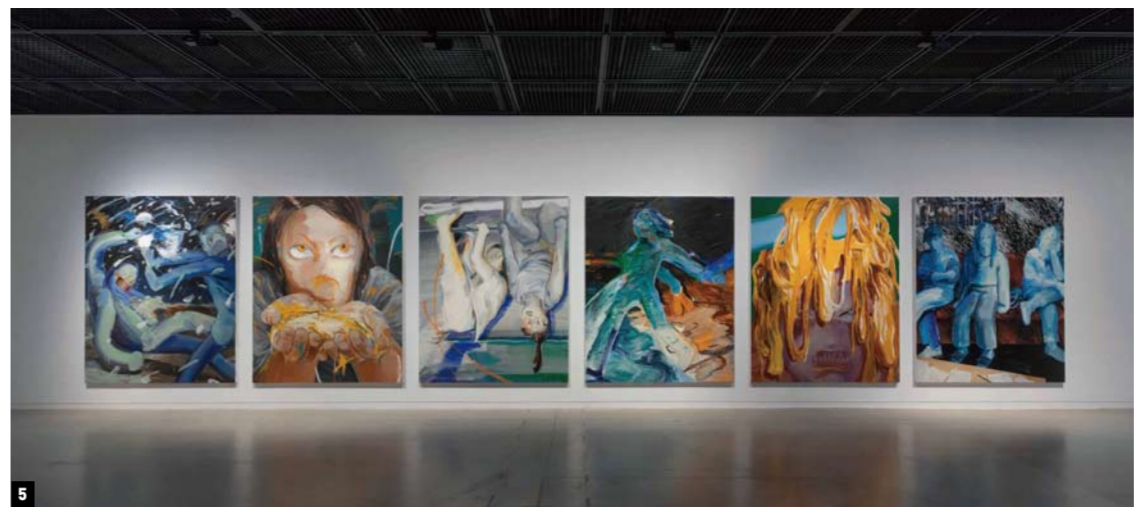
느리고 조심스러운 걸음이어도 산책은 영감을 준다. 때로는 타인은 잘 모르는 데서 숨겨진 진주라도 찾을 듯한 '발걸음의 쾌감'도 느껴진다. 요즘 서울을 산책하다 보면 젊은 여성 작가, 중견 여성 작가의 전시가 부쩍 눈에 띈다. 40대, 50대도 얼마든 '신진'에 속할 수 있는 미술계에서 '젊은'이라는 수식어는 꽤 다양한 연령대로 해석될 수 있지만 말이다. 도시 산책 속에서 우리 시대를 다채롭게 수놓고 있는 여성 작가들과의 만남을 소개한다.

흐름에 대해 "올해 국내외에서 열린 다양한 여성 미술 기획전은 여성 문화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크게 바뀐 세태를 반영한다"면서 "여성의 서사와 일상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강 대표는 이는 특정한 방향의 트렌드가 아니라 미술계의 시선이 그만큼 확장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비단 미술계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친 현상이다. 여성 영화인들이 직접 제작하고 감독과 각본을 담당하는 사례나 그들의 역할이 두드러진 작품이 늘어나고 있으니 말이다. 할리우드에서도 인종차별 반대와 성폭력 고발 운동의 영향으로 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커졌고, 최근 <윈터우먼>이나 <물란> 등 대작에서 볼 수 있듯 백인 남성 위주의 캐스팅에서 벗어나 여성 주연을 늘리는 흐름이 두드러졌다.

2020 작가상 후보를 수놓은 여성 아티스트

국립현대미술관은 2020 올해의 작가상 후보로 김민애, 이슬기, 정희승 등 3명의 여성을 선정했다(후보군은 4명). 이슬기는 1990년대 초부터 프랑스에 거주하며 일상용품의 조형성에 주목해온 작가다. 전통 공예와 민속품 등을 동시에 맥락과 연결한 작품을 선보여왔는데, 언뜻 글로벌 무대에서 '보따리 작가'로 통하는 김수자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역시 지난해 작가상 후보에 오른 설치 작가 김민애의 작업은 조각물과 주변 맥락의 신비로운 관계를 말해주는 듯하다. 국립현대미술관 2전시실의 독특한 건축 구조를 이용한 설치 작품은 공간 속에서 연쇄반응처럼 전개되는 조각과 구조물로 이뤄진다. 공간과 구조물, 작품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황은 조각이 주어지던 환경이나 맥락과 떨어져 존재할 수 있는가, 라는 작가의 오랜 질문에서 시작한다. 김민애 작가는 전화 인터뷰로 소감을 전해왔다. "여성 작가들이 주목받는 건 기분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일부러' 여성 작가로 나눌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무의식적으로 성을 드러내지 않는 작품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돌아오니 조각이 가지는 수직성에 반하는 작업을 계속해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각이 지닌 성질과 그에 반하는 것, 주변 맥락을 드러내는 조각에 대한 이야기 말이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선보이고 있는 작품도 거창한 질문을 하려는 게 아니라 수직적이고 기념비적으로 보이는데 사실 내용은 다 텅 비어 있는 형태다."

신진 작가에게 주목하는 갤러리2의 전수연 기획자는 페미니즘 담론에서 벗어난 작가를 포함해 보다 종합적으로 미



술계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국립현대미술관의 2020 올해의 작가상(전시는 2021년 4월 4일까지) 후보에 오른 정희승 작가의 작품은 그런 고민에 대한 답을 들려주는 것 같다. 예술과 삶의 연결 지점을 골똘히 고민하는 그녀는 예술가로 살아가는 일에 대한 고민을 놓고 동료들과 소통하는 과정 자체를 전시장에 펼쳐놓는다. '침몰하는 배에서 함께 추는 춤과' '알코올 중독자와 천사들을 위한 시'는 2개의 파트이면서도 서로 연결되는 설치 작업인데, 예술가의 삶을 선택한 이들의 현실과 두려움, 삶만큼이나 부조리하고 무성한 예술이라는 세계를 향한 위트 있는 그녀의 표현이다. "그동안은 틀어박혀 혼자 작업하는 성향이 있었다. 2017년 광주 비엔날레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아트 신에서 활동하며 미술계 안팎으로 여러 사건을 겪었는데, 근본적으로 작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생겼다. 미술계가 삶과 멀리 떨어진 느낌을 받으며 예술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고민하던 때였다. 그러면서 다른 작가들과 그 고민을 함께 나눠보고 싶었다. 사실은 그런 추상적인 질문에 정답은 없지 않은가. 그런데 작가들과 실제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대화에서 이미지와 텍스트가 파생됐다."

서울을 찾아온 그녀들

지난해 미술계만이 아니라 SNS상에서도 많이 화자됐던 여성 작가로는 가나아트, 파라다이스 아트스페이스 등에서 전시회를 가졌던 지하루 시오타를 꼽을 수 있다. 혈관을 떠올리게 하는 그녀의 섬세한 실 작업은, 여성 작가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세밀하고도 큰 주제가 아니었을까. 한국인 남편을 두고 베를린에 주로 거주하는 지하루 시오타는 드로잉부터 조각, 설치와 퍼포먼스까지 다양한 영역을 탐구하는데, 주제가 내면 일기 같아서 더 마음에 와 닿는다. 어린 시절 할머니의 무덤에서 느낀 공포, 이웃집에서 일어난 화재의 기억, 두 번의 암 투병으로 겪은 죽음에 대한 공포 등 삶



과 죽음에 대한 고민과 트라우마는 한 편의 자서전 같기도 하고 긴 인생 이야기 같기도 하다. "작품이라는 것은 마음에 서 말들이지는 것이다. 그리고 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작가의 일이다. 그 마음을 다루는 일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표현하는 언어와 같다고 생각한다. 실이 얽히고 휘감기고 끊기고 묶이고 꼬이는 다양한 관계를 말해준다." 생명과 존재에 대한 장엄한 서사시를 읊는 듯한 지하루 시오타의 전시를 다시 보고 싶어 하는 이들이 많다. 페미니스트 아트에 대한 고정적인 시각을 흔드는 작가로 꼽히는 상탈 조페의 첫 서울 나들이도 주목할 만하다(오는 1월 29일까지 리만버먼 갤러리에서 진행된다). 미국에서 태어나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상탈 조페는 어머니나 친구 같은 여성의 일상을 주요 소재로 활용한 이전 세대의 예술가들에게 바통을 이어받았지만, 자신만의 세계를 확장한 작가다. 인물의 크기를 실제보다 더 키우는 방식을 즐겨 쓰는 데, 그 결과 관계의 친밀함이 강조되고 솔직함이 부각된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10대들'. 컷워크 모델부터 포르노 여배우, 어머니와 아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문학 작품 속 주인공을 확확에 담아냈다.

팬덤을 거느린 젊은 작가들

마치 아이돌 스타처럼 팬덤을 생성한 여성 작가도 있다. 컬렉터들의 지지뿐 아니라 동일한 세대의 젊은 층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SNS상에서 활발하게 공유되는 풍경을 볼 수 있다. 1987년생인 이은새 작가는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나 가족의 의미 등을 회화를 통해 보여주는 작업을 하는데, 꽤 이성적인 팬덤을 지니고 있다. 지난해 갤러리2에서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기존 작업에서 벗어나 회화라는 매체, 그리기 방식에 초점을 맞춘 전시 <As usual: 늘 마시던 걸로>를 열었고, 최근 수원시립미술관 5주년 개관전으로 개최하고 있는 <내 나니 여자라>에도 참여했다. 이 전시에 참여했 또 다른 여성 작가 이미래도 팬덤이 남다른 작가다. 이미래 작가는 양혜규 작가의 관심 작가에 들기도 한다. 자신을 '누구의 선배로도, 후배로도 생각하는 대상이 없다가' 딱 잘라 말하는 양혜규가 그저 작가로서 관심을 보내는 이미래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원초적인 생명체를 연상시키는 설치 작품 '히스테리, 엘레강스, 카타르시스: 섬들'을 선보였다. 이 전시를 두고 인스타그램에서는 '강렬했다. 세상이, 머리채 잡히는 전시회라니라는 후기가 올라오는 등 피드백도 흥미로웠다. 비슷한 나이의 대의 전현선도 꾸준한 팬층을 확보한 젊은 작가다. 지난해



열린 개인전 '열매와 모서리'에서 수채화 기법을 고수하되 추상과 구상이 조화를 이루는 색다른 작품을 선보였는데, '회화 작가로서 다소 드물게 제20회 송은미술대상 후보에 선정됐다(아무래도 설치와 미디어가 더 대접받는 편인 요즘 '미술상'의 기류를 감안하면 그렇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동시에 미술을 둘러싼 생태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여성 작가들이 붓물처럼 등장하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사실 인류의 반은 여성이므로 이상할 것도 없다. 하지만 마냥 뜰데 소신 없이 흐름에 편승하는 모양새는 달갑지 않기도 하다. 수원시립미술관 산은영 큐레이터는 이렇게 말한다. "오히려 여성 작가라는 프레임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때인 것 같습니다 여성 작가라는 프레임 그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글 김수진·프리랜스 에디터 Edited by 고성연

1 지하루 시오타(Shioa Chiharu), 'Between Us(2020), Red wool, wooden chairs installation view, Courtesy of the Artist and Gana Art and the artist. 2 리만버먼 서울에서 내년 1월 29일까지 진행되는 상탈 조페(Chantal Joffe) 개인전 (Teenagers) 전시 풍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Bella(2020), Oil on canvas, 215 X 100cm, 'Alba(2019), oil on canvas, 305 X 152cm. 3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20) 전시 모습. 이슬기, '동행대리사(2020), 문, 물, 흙, 종이, 노래, 7면 크기. 4 정희승, '침몰하는 배에서 함께 추는 춤(2020), 사진 및 텍스트 설치, 7면 크기. 5 이은새, '밤의 괴물들 - 비하인드(2018), 캔버스에 유채, 227.3 X 181.8cm. 6 수원시립미술관 (내 나니 여자라) 전시 포스터. 7 이미래, '히스테리, 엘레강스, 카타르시스: 섬들(2020), 혼합 매체로 된 조각 군집, 7면 설치. 8 제20회 송은미술대상 후보에 오른 조경주, 4FB 설치 전경. Courtesy of the Artist and SongEun Art and Cultural Foundation and the Artist. 9 강문애, '구멍(2018), Paint on polystyrene and rubber, sound, moving light, 아틀리에 에르베스.



포스트모던 광대 vs 소소한 우주

프랑스 파리에는 현대미술을 적극 수호하는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아름다운 미술관이 있다. 블로뉴 숲에 자리한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과 몽파르나스 지구에 위치한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최근 이 두 미술관에서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미국 여류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전자는 <신디 셔먼(Cindy Sherman)> 회고전(2020년 9월 23일~2021년 1월 3일), 그리고 후자는 사라 제(Sarah Sze)의 <땀에서 낮으로>(2020년 10월 24일~2021년 3월 7일), 브랜드 각각의 메세나 철학과 미술관의 창조적 가치가 담긴 전시에 파리지앵은 그저 행복하다. 일단 미술관 자체가 세계적인 건축 거장들의 작품이다. 겨울바람에 땡땡해진 듯이 금방이라도 향해를 떠날 듯한 범선 모양의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은 프랭크 게리의 걸작이고, 전시 때마다 팔색조로 변화무쌍한 매력을 뽐내는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은 장 누벨의 대표작 중 하나다. 시간에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톡톡 쓰는 맛의 전시를 유지하고 있기에 더욱 반갑다. 두 재단의 독특한 성격 덕분에 루이 비통 재단 전시에서는 제3국 작가의 토속적인 작업도 '루이 비통화되어' 웬지 모르게 고상하고 고급화되는 느낌이고,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 미술관은 전시 때마다 건물 외벽, 홀부터 화장실 문과 복도까지 세심하게 큐레이팅되기에 미술관 자체가 새로운 작품으로 변신한다.



비주얼 행동주의자 신디 셔먼을 회고하다

신디 셔먼(Cindy Sherman, 1954~)은 이미 세계 미술사에 한 획을 그은, 현대미술계를 대표하는 사진작가다.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은 '회고전'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1975년부터 2020년 최근 신작까지, 연작을 포함해 셔먼의 작품 1백70점(3백 점 이상의 이미지)을 선보였다. 그녀는 권위 있는 미국 미술 평론가들이 언급하기 좋아하는 작가 중 한 명이다. 셔먼의 작업이 셀프 포트레이트 기법을 꾸준히 사용하면서도, 다양하고 첨예한 문제점을 명쾌하게 지적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소재가 같다는 점에서 비교가 용이하고, 대부분의 남성 작가들이 놓치는 페미니즘 예술과 젠더 정체성까지 포괄한 포스트모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신디 셔먼의 무제 - 필름 스틸을 보면, 대다수의 사진 속 여성들은 무언가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괴상한 소리나 낯선 호출(부름)에 놀라 그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는 모습이다. 존 버거는 "남성은 여성을 바라보고, 여성은 보여지는 스스로를 본다"(어떻게 볼 것인가) p.55)고 말했는데, 이러한 수동적 시각을 지닌 여성의 모습을 응시의 대상으로 재현했다. 더욱이 소리를 내며 바라보게 하는 능동적 시각의 주체는 늘 화면 밖에 있기에 그 정체성을 알 수 없다.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본다면, 남성의 응시에 지배당하는 여성의 모습일 수도 있으며, 좀 더 포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동안 인류를 지배해온 '로고스', '철대자', '무의식의 호출'일 수도 있다. 셔먼은 1970년대 이후 2세대 페미니스트 작업인 '여성'과 '몸'을 재현하면서, 위대한 여성이 아닌 평범한 여성의 자아를 일깨웠다. 1990년대부터는 포스트모던 주제가 등장하고, 2000년대 이후에는 SNS 등의 미디어를 사용하며 제

3세대 페미니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신디 셔먼의 무제 #216'은 고전 명작인 장 푸케의 '성모마리아와 아기 예수'(1450)를 패러디했다. 그녀는 "푸케가 여성의 가슴을 지공처럼 그려 해부학에 무지함을 확고히 드러냈다"며, 여성성을 '이상화한 것이 아니라 고정관념을 규정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셔먼은 '무제 #216'에서 보는 것처럼 공 형태의 가슴을 고의적으로 어색하고 눈에 띄게 만들어 부각했다. 푸케의 그림은 성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 배경에 붉거나 파란 천사로 가득 채웠다면, 셔먼의 천사는 레이스로 짜인 커튼의 문양일 뿐이다. 푸케의 그림에는 아기 예수가 있는 반면, 셔먼의 그림에서는 성모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는 포즈는 취하기는 했지만 아기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머리 부분에 '오리안' 듯한 붉은 원의 일부가 보일 듯 말 듯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환영, 이상, 초자연적인 것(神)은 셔먼의 작품에서 이처럼 깨끗이 제거됐다. 그녀는 '연출된 사진(staged photography)'을 제작하고, 디지털적 요소



신디 셔먼의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 전시 (Louis Vuitton Foundation Center for Contemporary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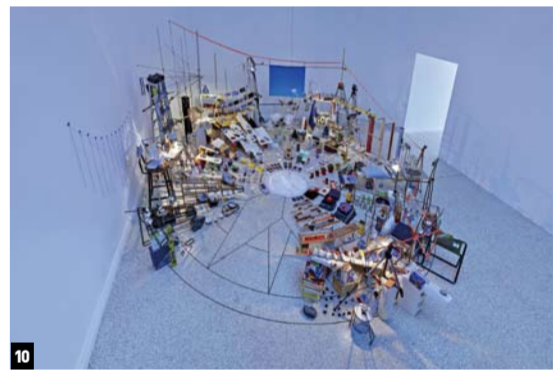
CINDY SHERMAN



SARAH SZE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1970년대 말부터 사진을 이미지 기록용이나 예술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기고 '찍는 시대에서 회화처럼 작가의 창의성과 비관성이 개입되는 창조하는 시대'로 이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셔먼은 현대 사진술의 발전을 앞당기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신디 셔먼은 '광대' 연작을 하면서,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티셔츠, 파자마, 천 조각 같은 여러 종류의 옷, 다양한 색의 가발 등 다양한 일상품을 동원했고, 이러한 것들이 합쳐져 광대가 된다는 것을 인식했다. 광대는 슬프나 추하고, 웃으면서도 비애감을 남기고, 히스테리한 다중적, 혼합적 감성의 인물이다.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야 하기에, 비록 다양한 관점을 소화하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래서 정신분열증을 앓는 현대인의 적나라한 모습이기도 하다. 이처럼 신디 셔먼은 페미니스트 작가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 작가들이 놓친 페미니즘적 요소까지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포스트모던 시대의 주제를 시각화하고 있다.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에는 신디 셔먼의 회고전 외에도, 그녀가 직접 큐레이팅한 전시 <교차된 시선: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 소장품 컬렉션>을 같은 기간에 개최했다. 이 가운데 자말레 무홀리(Zanele Muholi, 1972~)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디 셔먼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작가. 셀프 포트레이트 기법, 연출된 사진, 지배적인 관점에 저항하는 작업을 한다는 공통점을 품고 있다. 신디 셔먼보다 훨씬 어리지만, 1세대 페미니스트처럼 '나만의 방(버지니아 울프)'을 요구하는 그녀에게 예술은 '소나 유희를 위한 것이 아닌 정치적인 것이다. 여기서 페미니스트를 1, 2, 3세대로 구분하는 것은 작품성의 발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작가가 처한 사회·정치적 상황에 의해 조건 지어진다. 무홀리는 '언제나 심문받고, 침해받고, 폄하되는 흑인의 몸이 당해야 하는 부당함을 재현하기 위해 3백65일 동안 자화상을 찍었는데, 검은 암사자 만세'라는 연작이다. 페미니즘, 인종차별, LGBTI 공동체 문제까지 다루기에 폭행의 표적이 되지만, 폭력에 굽히지 않는 그녀는 자신을 비주얼 아티스트가 아니라, 비주얼 행동주의자라고 지칭한다(가디언(The Guardian), 2017년 7월 14자 인터넷 신문 인용).



1 신디 셔먼(Cindy Sherman), 무제 필름 스틸 #13(1978), 컬러 프린트, 24 X 19.1cm. 2 무제 #92(1981), 크로마제너 컬러 프린트, 61 X 121.9cm. 3 지난해 가을부터 올 초까지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에서 열린 신디 셔먼 회고전의 전시장 풍경. 사진 제공 Fondation Louis Vuitton 4 무제 #216(1989), 크로마제너 컬러 프린트, 221.3 X 142.5cm. 5 무제 #414(2003), 크로마제너 컬러 프린트 Edition 5/6, 147.3 X 99.7cm. 1, 2, 4, 5번 Courtesy of the Artist and Metro Pictures, New York © 2019 Cindy Sherman 6 신디 셔먼이 큐레이팅을 맡은 <교차된 시선: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 소장품 컬렉션> 전에 선보인 작품. 자말레 무홀리(Zanele Muholi), 'Thembekele'(2015, 파르타운 검은 암사자 만세 시리즈), 컬러 프린트, 80 X 62cm © Zanele Muholi 7 사라 제(Sarah Sze), 'Twice Twilight'(2020), Mixed media, wood, stainless steel, acrylic, video projectors, archival pigment prints, ceramic. © Sarah Sze Photo © Luc Boegly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에서 진행 중인 사라 제 개인전 <땀에서 낮으로>에 설치된 모습. 8 Sarah Sze, 'Crescent[Timekeeper]'(2019), Mixed media, wood, stainless steel, acrylic, video projectors, archival pigment prints, ceramic and tape. © Sarah Sze Photo Genevieve Hanson 9 'Tracing Fallen Sky'(2020), Mixed media, salt, archival pigment prints, video projectors, pendulum. © Sarah Sze Photo © Thibaut Voisin 10 Sarah Sze, 'Triple Point (Pendulum)'(2013), Salt, water, stone, string, projector, video, pendulum, mixed media. © Sarah Sze © Photo Tom Power Imaging

현대미술재단의 유리벽을 넘어 한없이 팽창한다. 사라 제의 현재 작업은 그 근원을 '휴대용 플라네타륨(planetarium)'이라는 아이디어에 두고 있다. 단순한 데생에서 시작해 그녀의 스튜디오에서 작은 플라네타륨으로 태어났고, 규모 큰 미술관에 부족한 듯 작품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의 벽, 즉 미술관 공간 너머로 간다. 플라네타륨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단지 별들이 모여 있는 천구가 아니라, 주변의 소소하고 연약하며 부질없이 보이는 것들의 집합체다. 해변에서 뛰놀던 어린 시절의 한 컷을 담은 사진, 스튜디오 앞에서 문득 바라본 석양, 곧 사라져버릴 한 조각의 구름, 바람에도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 등을 시각적으로 재현한 기억의 플라네타륨이기도 하다. 이러한 소소하고 연약한 것들이 모이고 커져 비뻥처럼 점점 더 확장되고 별처럼 빛난다. 프로젝트에 비친 관객의 그림자가 작품에 드리우며 함께 움직이고 리듬을 타고, 마침내 관람객 자신도 작품이 된다. 전시장 밖으로 나와도 전시는 계속된다. 전시장 안의 작업

과 전시장 밖의 가로등 불빛, 차량, 나무 그림자 등이 섞이면서 작품은 팽창을 계속한다. 11월 24일부터는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에 증강현실을 사용한 제2의 달도 뜬다. 사라 제는 이미지를 직접 그리거나 사진을 프린트해 설치 구조물에 배치하고 프로젝터를 쓴다. 이 이미지들은 칼과 자를 사용해 네모반듯하게 자르지 않고, 손으로 대충 썬 듯 가장자리가 어느 하나도 고르지 않다. 그래서 '완벽'이란 허물을 벗고, 시간에 의해 마모되고 풍화로 부서진 것처럼 보인다. 그녀의 플라네타륨에는 주변 환경의 소소한 것들, 연약한 것, 쉽게 잊힐 수 있는 것들이 모였다. 그녀는 지난 봄 프랑스에 1차 이동 봉쇄령이 내려졌을 때,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에서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전시를 준비했다. 작은 바이러스에도 쉽게 무너지는 삶과 일상, 그렇기에 오히려 더욱더 안타깝고, 아름다우며, 소중히 가꿔야 한다는 것, 그렇기에 더욱더 외부와의 소통도 귀하고 신비하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듯하다. 글 심은래 미술 기획·비평가 Edited by 고성연

바르다가 사랑한 ‘감자토피아’의 세계

2015년, 시력을 잃어가는 80대 노감독 아녜스 바르다(1928~2019)와 한밤중에도 검은 선글라스를 쓰는 30대 포토그래퍼 JR(장 르네, 1983~)이 만났다. 독특한 머리 염색으로 필레올루스(작은 바가지 같은 모자)를 쓴 듯한 아녜스와 늘 검은 페도라를 착용하는 JR. 이 둘은 국내 개봉작이기도 한 영화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2017)을 공동 연출했다. 작고 통통한 바르다와 큰 키에 마른 몸매의 소유자로 어딘가 조숙해 보이는 JR은 55세의 나이 차가 무색할 만큼, 이 영화에서 유쾌한 케미를 빚어냈다. 아녜스 바르다는 누벨바그를 이끈 여류 영화감독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녀는 세 가지 삶을 살았다. JR처럼 포토그래퍼로 커리어를 시작한 그녀는 이후 영화감독이 됐고, 마지막으로는 시각예술가로 활약했다. 거장의 ‘삼색’ 커리어를 짧게나마 추억해본다.



지난해 말, 파리 4구에 자리한 나탈리 오바디아 갤러리(Galerie Nathalie Obadia)에서 <아녜스 바르다에 의한 발렌틴 슐레겔(Valentine Schlegel Par Agnès Varda)>이라는 전시가 열렸다. 발렌틴 슐레겔(1925~)은 프랑스의 저명한 도예가이자 조각가로 아녜스 바르다의 죽마고우. 이 전시에는 그간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아녜스의 1950~1960년대 사진 작업을 선보였다. 바로 이 시기의 유명했던 발렌틴의 작업 세계를 담고 있는 사진들이다. 무대의상가이자 예술 감독으로 모친과 JR의 만남을 주선한 주인공이기도 한 아녜스의 딸 로잘리 바르다(Rosalie Varda)가 전시 큐레이팅을 맡았다. “발렌틴 슐레겔의 조각품을 어머니가 내게 직접 건네줬는데, 나는 이 작품들과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그녀는 회상한다.

백사장에서 꽃피운 우정과 예술적 영감

아녜스는 10대 시절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벨기에에

서 프랑스 남부 소도시 세트(Sète)로 가족과 함께 이주했는데, 이웃집에 발렌틴 슐레겔이 살았다. 지중해가 맞닿아 있는 수려한 풍경으로 랑그도크 지역의 베니스라 불리는 아름다운 해안도시 세트는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라는 구절로 못사람들의 마음을 흥진 시 해변의 모자를 쓴 폴 레리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그렇게 ‘백사장에서 피어난 우정’을 평생토록 나는 이 두 여인에게 빼어난 자연경관을 품은 해변은 창조적 영감을 선사하는 예술적 고향이었다. 문학과 심리학, 예술사, 사진 등을 공부한 아녜스는 포토그래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고 국립인 증극장(TNP)에서 일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라 푸앵트 쿠르트의 여행(La Pointe Courte)>(1955)이라는 저예산 영화를 찍게 된다. ‘누벨바그의 진정한 시작점’이라는 평론가들의 찬사를 받은 이 실험적인 데뷔작은 어촌을 배경으로 하는데, 바로 그 장소가 세트였다(발렌틴 슐레겔도 이 작품의 아티스트 디렉터로 참여했다).



발렌틴도 프랑스 남부의 풍요로운 자연과 고향 세트를 둘러싼 눈부신 지중해에서 예술적 영감을 받았다. 새, 나무 등의 생명체를 동그스름한 곡선으로 처리하는 그녀의 도자기는 추상조각의 대가 헨리 무어나 한스 아르프에 가까운 언어를 구사한다. 흥미로운 점은 발렌틴의 도자 작품은 일반적인 조각처럼 그 자체로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나탈리아 오바디아 갤러리의 전시에서 선보인 아녜스가 찍은 사진에서처럼) 꽃, 나무 같은 자연의 생명을 꽃아 넣거나 결들일 때 비로소 마침표가 찍힌다는 것이다. 건축적인 테크레이션 작업인 ‘백난로(Cheminée)’는 슐레겔의 독창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지중해 풍경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이 작업은 하얀 석고로 마감한 부드러운 곡선과 리듬으로 포근한 느낌을 선사한다. 백난로 옆으로 소파처럼 앉거나 누울 수 있는 넉넉한 공간도 있고, 화병이나 장식품을 놓을 양중맞은 공간도 포함된 일종의 확장된 백난로다.

70대 중반, ‘시각예술가’로서의 여정을 시작하다

2003년 아녜스 바르다는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전시한 ‘파타투토피아(Patatutopia)’라는 설치 작품을 계기로 ‘시각예술가로 본격 데뷔한다(‘파타투토피아는 파타트(감자)와 유토피아를 합친 조어로 ‘감자토피아’를 뜻한다). 7년 전 봄, 필자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서울의 한 미술관에 파타투토피아를 전시한 적이 있고, 그때 영화 <이삭 줍는 사람들과 이삭 줍는 여자(Les Glaneurs et la Glaneuse)>도 함께 상영했어요”라며 한국과의 인연을 즐겁게 회상했다. “파타투토피아는 <이삭 줍는 사람들과 이삭 줍는 여자> 이후에 만든 작품이에요. 이 영화에서 아주 많은 감자를 촬영한 뒤 창고에 뒀는데, 그중 운 좋게 하트 모양 감자가 있길래 관찰도 하고 촬영도 했어요. 놀라운 건 이 감자가 늙어가는데도 동시에 썩어 난다는 사실이에요. 이 감자들은 숨을 쉬고 있었는데, 이러한 변형이 정말 대단하고 신기했죠.” 그녀는 ‘혼돈의 세계(카오스, 죽음)와 화해하면서 동시에 아름다움을 싹틔우는 평범하고 못생긴 감자들이 자신과 함께 유토피아를 공유했음을 강조했다.

75세에 도전한 베니스 전시를 계기로 그녀는 자신을 소개할 때 “나이 든 시네 아티스트이자 젊은 시각미술가”라는 반어적 표현을 즐겨 썼다. 2006년, 그녀는 시각예술가로서 까르피에 현대미술재단에서 개인전을 가졌는데, 당시 프랑스 서부 대서양 연안에 떠 있는 누아르무티에(Noirmoutier) 섬을 파리 한가운데로 옮겨놓아 눈길을 끌었다. 이 섬은 육지와 이어진 교량으로 갈 수 있지만, 제2의 신비스러운 길인 ‘고외의 파사주(Passage du Gois, 약 4.5km)’를 통해서도 접근 가능하다. 이 길은 바닷물에 덮여 있다가 해수면이 가장 낮은 간조 시간대에 자태를 드러낸다. 이때를 기다려 관람객, 낚시꾼, 조개 줍는 이들이 모여든다. 아녜스 바르다는 이 길을 도시적이고 현대적인 느낌으로, 그러나 신비한 ‘빛의 길’로 재현한 것이다. 이때 만든 작품 ‘누아르무



티에 3부작(2004~2005)은 뉴욕 MoMA와 까르피에 재단에 소장되었다. 이외에도 LACMA(2014), 리옹 비엔날레(2009), 바젤 아트 페어(2010), 콩피두 미술관(2015) 등에서 전시하면서 시각예술가로서의 여정을 이어간다. 그녀의 사진은 영화의 수많은 장면을 압축한 듯한 질감감을 품고 있고, 설치 작품은 관람객이 스크린 안에 있는 것처럼 영화를 직접 체험하게 하는 힘이 있다.

저항하라, 그리고 삶의 아름다움을 공유하라

2015년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명예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그녀는 “나는 여성으로 [...] 무수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유라는 커다란 행복을 얻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젊은 예술인들을 향해 “현실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실망과 어려움에 ‘저항하라’라고 격려했다. 그 자신 역시 대중성과 상업성에 타협하지 않고 예술적 이상과 자유를 추구했고 말이다. 그녀와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을 공동으로 연출한 JR은 이처럼 저항하는 젊은 작가군에 속한다. 스트리트 아티스트로서 많은 재정적 난관을 겪은 그는 꽤 유명해진 지 금도 ‘노 브랜드, 노 로고’라는 원칙(브랜드나 기업의 협찬 거절)을 고수하고 있다. 이제는 선글라스와 모자가 그의 예술적 정체성이 됐지만, 사실 JR이 검은 안경을 쓰는 주된 이유는 사회 고발적인 자신의 작업을 위해서는 익명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아녜스의 튀는 헤어스타일은 일찌감치 ‘노션이’ 정해졌다. 18세 때, 16세기 남성 초상화를 보고는 볼 숏컷(Bowl Shortcut)을 했고, 이후에도 이 스타일을 계속 유지했다고. 어두운 보라색 머리 한가운데 하얀 뺨모자라는 쓴 것 같은 반어적인 헤어스타일은 가운데 머리만 삭발한 중세 수도승의 ‘톤수라(Tonsura)’ 스타일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헤어스타일) 초콜릿과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지 않나요?”라고 되묻는 그녀는 어려운 시기를 겪는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존재가 잠시라도 달콤한 위안이 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

평생에 걸쳐 사회 비판적이고 혁명적인 작업을 해온 아녜스 바르다. 그녀는 매번 마주칠 때마다 기꺼이 삶의 아름다움과 경이를 나누고 싶어 한, ‘긍정 에너지를 품은 인물’이었다. 그래서일까. 필자에게 바르다가 사랑하는 얼굴이란, 감자처럼 평범하고 단순해도 일상에 함몰되지 않고, 창조적이며 자유로운 싹을 키워내는 ‘감자토피아’ 세계를 가꾸는 자들이다. 글 삼은택 미술 기획 · 비평가 Edited by 고성연



1 수집품인 칼을 들고 있는 발렌틴 슐레겔을 자신의 키메라에 담은 아녜스 바르다(Agnès Varda), Linou with a knife of her own collection - Vase and plate, rue Daguerre, Paris, Circa 1955 © Succession Varda Courtesy of the artist and Galerie Nathalie Obadia, Paris/Brussels 2 아녜스 바르다, 'Cheminée rue Daguerre(1959)', Vintage silver print from the negative 6X6, 18X18, 1cm, © ciné tamaris, Courtesy of the artist and Galerie Nathalie Obadia Paris/Brussels 3 프랑스 남부 소도시 세트의 해변 위에 놓인 발렌틴의 조각품을 담은 아녜스 바르다의 작품, Sculpture of Valentine Schlegel photographed by Agnès Varda in 1958 on the beach of Sète © Succession Varda Courtesy of the artist and Galerie Nathalie Obadia, Paris/Brussels 4, 5 최근 파리의 나탈리 오바디아 갤러리에서 열린 <아녜스 바르다에 의한 발렌틴 슐레겔> 전시 풍경. Photo credit Bertrand Huet / Tutti Images, Courtesy of the artist and Galerie Nathalie Obadia Paris/Brussels 6 2019년 3월 말 90세에 별세한 아녜스 바르다. © ciné tamaris, Courtesy of the artist and Galerie Nathalie Obadia Paris/Brussels

일관성도 충성심도 없는, 위대한 그림 '리히터'

미술 시장 통계업체 아트 프라이스의 '2019년 미술 시장 보고서'에 의하면 게르하르트 리히터(Gerhard Richter, 1932~)는 생존 작가 중 '몸값 1위'다. 일반적으로 '비싼 작가 톱 10'에 드나드는 경우, '키치의 제왕' 제프 쿤스, '미술계의 악동' 데이미언 허스트, '스캔들 제조자' 마우리치오 카텔란 등과 같이 악명이나 스캔들을 동반하는 예가 많다. 리히터는 이러한 종류의 스캔들이 없는 작가다. 미디어나 대중 앞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는다. 그만큼 예술성과 독창성을 인정받고 있다. 사실 '비싼 작가'라는 자본주의적 수식어를 그의 이름 앞에 다는 것이 송구할 정도로 작품성이 뛰어나고, 현대미술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저 '리히터'라는 이름 하나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지닌다.

"나는 어떤 목표도, 체계도, 경향도 추구하지 않으며, 어떤 경력도, 스타일도, 방향도 갖고 있지 않다. 나는 일관성이 없고, 충성심도 없으며 수동적이다. 무규정적, 무제약적인 것을 그리고 끝없는 불확실성을 좋아한다."

—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Notes, 1966에서

금세기 최고의 작가로 꼽히는 게르하르트 리히터(Gerhard Richter)의 그림 스타일이 바뀔 때마다 미술 관계자들은 흔히 신표현주의자, 후기 낭만주의자, 사진-회화 작가(photo-paintings artist) 등과 같은 수식어를 들이대면서 그의 작업을 특정 경향으로 규정하려 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을 특정 프레임에 가두지 말아달라고 단호히 당부한다. 실제로 다양하고 때로는 상반된 작업의 변화에 비하면 '일관성도 충성심도 없다'는 그의 주장은 꾸준히 일관성을 보여주면서 작품에 반영된다. 그 이유를 알면 어렵다는 그의 작품도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

게르하르트 리히터는 1932년 옛 동독의 드레스덴에서 태어났다. 그가 일곱 살 때, 히틀러 군대가 폴란드를 침략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곧이어 아버지 호르스트 리히터(Horst Richter)는 히틀러 군대에 징집되는데, 연합군에게 생포되어 전쟁이 끝날 때까지 포로로 잡혀 있게 된다. 이후 리히터의 작품에도 등장하는 삼촌 루디(Uncle Rudi [CR: 85])와 숙모 마리안(Tante Marianne [CR: 87])도 전쟁으로 목숨을 잃는다. 1942년에는 그 역시 히틀러 청소년 단체에 소환된다. 어린 리히터는 전쟁이 무엇인지, 특히 전체주의가 어떤 것인지 머리로 인식하기도 전에 몸으로 체험하고 지을 수 없는 흉터와 트라우마를 안게 된다. 본능적인 치유 방안이었던 리히터가 미술에 관심을 가진 시기가 이때였다. 소극적이지만 전체주의에 저항하는 방법이라고 여겼기 때문인지, 토마스 만과 같이 나치의 박해를 받는 작가나 저항 문화가의 저서를 탐독했다. 이후 그는 한 인터뷰에서 직접 밝혔듯(안 토른 프리커르(Jan Thorn-Prikker)와의 인터뷰에서, 2004) '사회적 리얼리즘이 교육 목적인 드레스덴 아트 아카데미에서 본격적인 미술 수업을 받고 졸업한다. 그리고 1961년, 그는 동독에서 탈영 행위에 견줄 만큼 커다란 위험을 무릅쓰고 서독으로 와 '피란민'이 된다.

동독보다는 많은 자유가 허용됐지만, 그는 또 다른 형태의 서구적 전체주의를 느꼈다. 바로 자본주의였다. 1963년, 그는 지그마어 폴케, 콘라트 뵉 등과 함께 사회적 리얼리즘과 비교해 팝아트, 정크 컬처(Junk Culture)에 근거한 자본주의 리얼리즘이라는 운동을 시작한다. 그런데 사실 리얼리즘 앞에 '사회주의적', '자본주의적' 등이 붙는 것은 이미 리얼리즘이 아니다. 이는 사실 그대로를 보는 리얼리즘에 '사회주의적' 혹은 '자본주의적'이라는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관점을 제외하고 다른 나머지 관점에 대해

서는 배타적이 되기 때문이다. 그의 아버지가 삼촌처럼 가해자의 옷을 입었지만 피해자일 수도, 피해자의 위치에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가해자일 수도 있다. 게르하르트 리히터는 '리얼리즘의 실제(혹은 '실제')를 찾는다는 것은 정치적, 문화적, 언어적 구조 안에 있는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예술가의 예민한 감각으로 일찍부터 깨닫는다. 그리고 196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관점과 스타일이 포함된 아카이브 작업인 '아틀라스'를 시작한다. 사진, 인쇄물, 스케치 등으로 구성된 거대한 이 작업은 꾸준히 추가·삭제·수정되면서 오늘날도 지속되고 있는 독립된 작업이자, 근작인 '케이지 페인팅(Cage Paintings)'을 포함한 모든 작업의 원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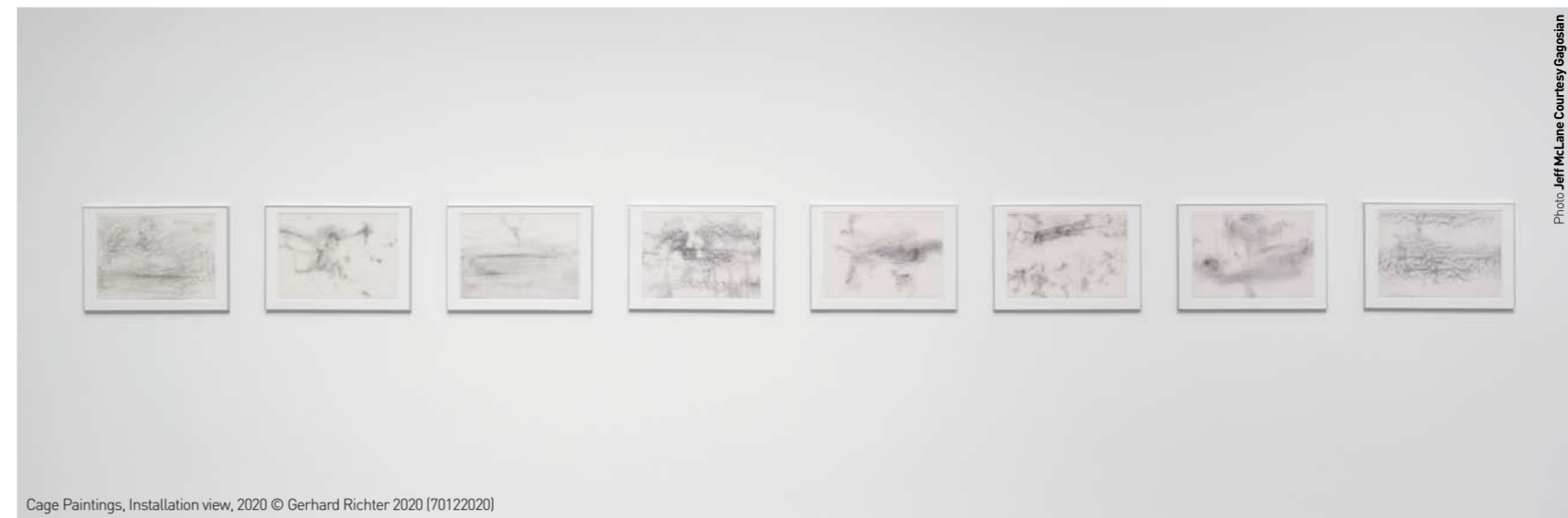
리히터는 도달할 수 없는 실재를 시각화하려는 듯, 자신의 작업에 '흐림 기법'을 사용한다. 그는 "흐린 이미지는 묘사가 만드는 정의에 반대"하며, "불확실성은 그 일부이자 작업의 전제"라고 언급하곤 한다. 사진과 인쇄물의 복제품 등 팝아트적 요소를 도입하나, 주제를 흐릿하게 하면서 객관적 사실의 불가능성을 암시한다(나치 체제를 입은 '뚝뚝 삼촌(Uncle Rudi)'(1965), '췌장', '베터' 등의 작품에서 볼 수 있다). 사진과 회화의 경계를 흐리고, 때로는 사진 위에 물감을 덧칠하거나 흙뿌려 복사본과 원본의 경계를 애매하게 하고, 사진의 구성적인 대상과 추상적인 물감을 대치시키면서, '조화'와 '익숙함'보다는 '이질감'과 '낯설'을 선사한다. 리히터의 추상회화에서 이러한 '흐림 효과(blurring effect)'는

더욱더 적극적이 된다. 초점이 맞지 않는 사진 효과처럼 유성물감이 마르기 전에 스퀴지(squeegee)를 사용해 이미지, 형태 혹은 색면의 경계를 고의적으로 흐리고 섞는다. 운동과 에너지를 재현하려는 게 아니라, 주제에 모호하고 애매하며 우유부단한 면을 추가하며 완성을 지연시킨다. 이 같이 그는 회화에 '우연성'을 개입시킨다.

이러한 그가 '우연성 음악의 개척자 존 케이지(John Cage)와 만난 건 필연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그의 이름을 딴 작업이 2006년부터 선보인 '케이지 페인팅' 연작이다. 작품 선상에서뿐만 아니라, 리히터는 1960년대 뒤셀도르프 아카데미에서 공부하던 시절, 공연자 방문한 케이지를 실제로 만났다. 그리고 케이지 페인팅 작업을 하면서도 그의 음악을 들었다고 한다. 존 케이지는 펜에 마이크를 부착해 글을 쓸 때 종이에서 펜이 긁히는 소리를 연주했는데, 캔버스 위를 긁는 '스퀴지가 연상된다. 리히터는 이러한 시각적 우연성에 청각적 우연성을 추가한다. 스퀴지 사용은 이전 작업을 대체하는 동시에 우연성에 의한 새로운 작업을 발생시킨다. 스퀴지는 상위에 있는 레이어를 제거하고 깊이 묻혀 있던 하위의 레이어를 드러내기도 하며, 혹은 이 모두를 섞어 질서정연했던 각 레이어의 시공간을 해체한다. 오늘날 수많은 미술 애호가들이 리히터의 작업에 매료되는 이유는, 모든 가능한 잠재적 전체주의, 이데올로기 등을 경계하며, 우연성을 통한 바깥의 사유로 안내하기 때문이 아닐까.

글 심은택(미술 기획·비평가) Edited by 고성현

1, 2 게르하르트 리히터가 자신의 쥘른 스튜디오에서 2006년에 선보인 '케이지 페인팅' 시리즈를 작업하는 모습. Gerhard Richter working on one of his 'Cage' paintings, Cologne, Germany, 2006. Artwork © Gerhard Richter 2020 (05102020) Photo: © Hubert Becker Courtesy Gagos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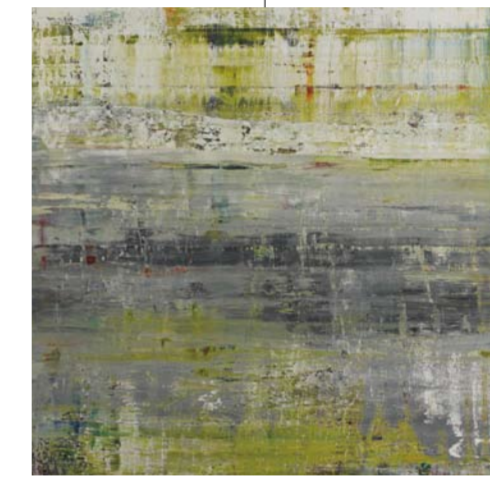
Cage Paintings, Installation view, 2020 © Gerhard Richter 2020 (70122020)



Cage 1, 2006
Oil on canvas 114 1/4 X 114 1/4 in 290 X 290 cm
© Gerhard Richter 2020 (05102020) Courtesy Gagosian



Cage 4, 2006
Oil on canvas 114 1/4 X 114 1/4 in 290 X 290 cm
© Gerhard Richter 2020 (05102020) Courtesy Gagos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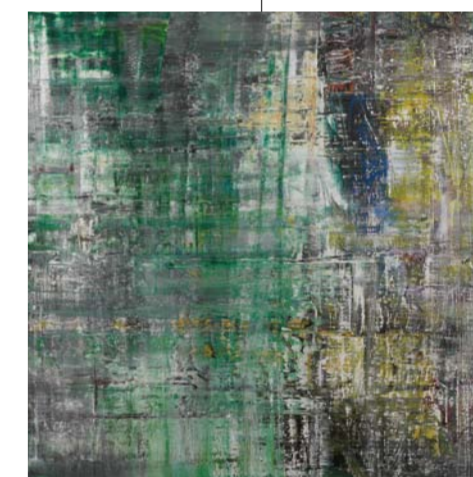
Cage 2, 2006
Oil on canvas 118 1/8 X 118 1/8 in 300 X 300 cm
© Gerhard Richter 2020 (05102020) Courtesy Gagosian



Cage 5, 2006
Oil on canvas 118 1/8 X 118 1/8 in 300 X 300 cm
© Gerhard Richter 2020 (05102020) Courtesy Gagosian



Cage 3, 2006
Oil on canvas 114 1/4 X 114 1/4 in 290 X 290 cm
© Gerhard Richter 2020 (05102020) Courtesy Gagosian



Cage 6, 2006
Oil on canvas 118 1/8 X 118 1/8 in 300 X 300 cm
© Gerhard Richter 2020 (05102020) Courtesy Gagosian

Gerhard Richter: Cage Paintings

게르하르트 리히터(Gerhard Richter)라는 이름은 이미 미술사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에 그의 작품을 좋아한다는 고백은 외려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다. 리히터에 대해 잘 모를 때도 (지금도 다 알지 못하지만), 그저 좋아서 그의 고향 드레스덴에 간 적이 있다. 마침 그의 여든다섯 살 생일을 기념하는, 심지어 노장의 신작을 선보인 작은 전시가 열리고 있었기에 내심 '오호 패재라~'를 외쳤다. '엘베강의 진주로 불리는 드레스덴은 제2차 세계대전의 포화로 그야말로 축대밭이 됐던, 쓰러린 상처가 있는 독일의 유서 깊은 도시. 전쟁의 주범이자 패전국인 독일에서 태어나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된 이들의 자괴감과 트라우마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어린 상흔을 자신만의 예술로 승화시킨 저항이 한 인간으로 느껴진 여행이었다. 그 한 많고 아름다운 도시를 배경으로 한 리히터의 유소년 시절과 처절한 기억을 담은 회화를 바탕으로 하기에 그의 예술적 근원과 추동을 가능케할 수 있는 영화(작가 미상)(2018)이 지난해 봄 국내에서 개봉되기도 했다. 통일 전 동독 사회를 소재로 삼은 히는 감독으로 영화 <타인의 삶>으로 오스카상을 받기도 한 폴로리안 헨켈 폰 도너스마르크의 작품이다. 스스로 작품에 대해 세세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리히터 본인은 나중에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도 들리지만, 3시간이 넘는 긴 리턴타입에도 빨려 들어갈 듯 매혹적이다. 회화에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고 평가받는 위대한 화가 리히터. 부단히 경계를 허물면서 심연의 스펙트럼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가 현대음악의 신호로 여겨지는 전위예술인 존 케이지의 음악을 들으면서 종종적으로 완성했다는 '케이지 페인팅' 연작, 그리고 신작(8점의 드로잉 작품)까지 더한 전시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가고시안(Gagosian)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이 전시는 오는 2월 말 뉴욕으로 여행한다). "마침내 케이지가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에서 전시된다니 매우 기쁘다"고 밝힌 그만큼 지면으로나마 전시를 감상하는 이들도 행복감을 느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글 고성현
전시 일정 2020년 12월 30일~2021년 1월 30일 전시 장소 미국 가고시안 갤러리(로스앤젤레스)



JACK DE BOUCHERON AND QUATRE COLLECTION

BOUCHERON

PARIS SINCE 1858

GALLERIA EAST | LOTTE AVENUE | LOTTE MAIN DUTY FREE

LOTTE WORLD | SHINSEGAE GANGNAM

02 3479 6028

